

# 제10회 글틴 청소년문학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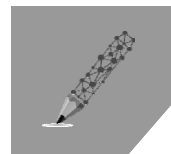
일시 | 2015. 1. 23(금) ~ 25(일)

장소 | 원주 토지문화관



# CONTENTS

전체 일정 .....	1
세부 프로그램 .....	2
참가자 명단 .....	23
① 숙소 배정 .....	23
② 분반 배정 .....	24
③ 조 배정 .....	25
글쓰기 클리닉 .....	27
강의 자료 .....	28
캠프생활수칙 .....	129
광고 .....	130
봉사 명단 .....	131
설문조사(양식) .....	132





## 제10회 글틴 청소년문학캠프 전체 일정

※ 아래는 개략적 일정이며 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일차	시간	내용	비고
1/23(금) 1일차	16:30	캠프장소 집결	
	16:30~17:30	방(분반) 및 숙소 배정	
	17:30~18:30	저녁식사	
	18:30~19:00	개회식	
	19:00~21:30	<b>친교 프로그램</b>	세부 별도
	22:00~23:00	분반별 모임	
	23:00~23:00	세면 및 자유시간	
	23:00	취침	
1/24(토) 2일차	07:30	기상	
	07:30~08:30	아침식사	
	09:00~12:00	<b>글쓰기 클리닉(장르별)</b>	세부 별도
	12:00~14:00	점심식사 및 조별 자유시간	
	14:00~16:00	<b>문학특강</b>	세부 별도
	16:00~17:30	춘극 경연대회 준비시간	
	17:30~18:30	저녁식사	
	18:30~21:30	<b>춘극 경연대회</b>	세부 별도
	22:00~23:00	분반별 뒷풀이	
	23:00~23:30	세면 및 자유시간	
	23:30	취침	
1/25(일) 3일차	07:30	기상	
	07:30~08:30	아침식사	
	08:30~10:30	폐회식	
	10:30	귀가	

※ 위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안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글틴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사이버문학광장 청소년문학관 글틴 담당 정대훈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부  
 Tel. 061)900-2193 / e-mail. rldyap@darko.or.kr

## 제10회 글틴 청소년문학캠프 세부 프로그램

### 1. 친교 프로그램

- ① 조별 이름 짜기
- ② 게임 1 : 몸으로 말해요
- ③ 게임 2 : 칭찬 폭탄 게임
- ④ 게임 3 : 이구동성

### 2. 글쓰기 클리닉

	<p>윤석정 (시인)</p> <p>2005년 《경향신문》 등단 시집 『오페라의 미용실』</p>
	<p>이계윤 (시인)</p> <p>2008년 《창조문예》 등단</p>
	<p>김보영 (소설가)</p> <p>2004년 제1회 과학기술 창작문예 중편소설 부문 2010년 『김보영 중단편선 1』 2013년 『7인의 집행관』 외 다수</p>
	<p>김미정 (평론)</p> <p>2009년 《시와세계》 여름호 평론 당선 2012년 제3회시와세계 작품상 수상 2012년 『하드와 아이스크림』</p>

### 3. 문학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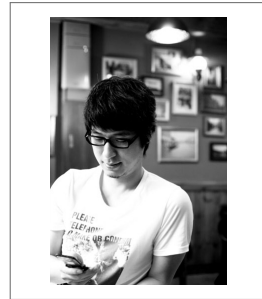
#### 1부 소설가 백가흠



2001년 단편소설 '광어'  
2005년 『귀뚜라미가 온다』  
2011년 『힌트는 도련님』  
2012년 『나프탈렌』  
2013년 『향』  
2014년 『조대리의 트렁크』, 『마담 뺱덕』 외 다수

#### 2부 편집장 백다흠

문학동네 편집자  
은행나무 편집장



#### 3부 용감한 형제



#### 4. 숙소 난입 프로젝트

	<p>권민자(시인)</p> <p>2012년 《문학사상》 등단</p>
	<p>김연필(시인)</p> <p>2012년 《시와세계》 등단</p>
	<p>김준현(시인)</p> <p>201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등단</p>
	<p>박성준(시인)</p> <p>2009년 《문학과 사회》 시, 2013년 《경향신문》 평론 등단 2012년 『몰아 쓴 일기』</p>
	<p>최백규(시인)</p> <p>2014년 《문학사상》 신인문학상</p>
	<p>임재영 (소설가)</p> <p>2012년 『아틀라스의 유언장』 등단 2014년 에브리북 『찌훈, 시훈 그리고 기구』 소설연재</p>
	<p>신박수진(희곡)</p> <p>2004년 『19세 꿈의 체온 39도』</p>

속소난입 프로젝트 작가들 작품

서른이 되어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밥 먹고 웃고 수다 떠는 것

권민자

처음은 육하원칙으로.  
놀이 같은 것으로.

어떤 날은 답아 두고 싶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방식으로.  
가령, 바람이 불지 않는 동안 바람을 생각했던 것.  
가령, 명들지 않는 플라스틱 같은 것.

이름은 굴림체처럼 생일은 얼음처럼  
성별은 트럭 같은 것으로 장소는 주저앉은 낙오자로  
행동은 에필로그에 중독되어 왜? 자꾸 파고드는 거니?

계속되는 충고는 이국적이다. 치즈처럼 녹여 먹기 좋다. 목각처럼 깎인 햇바닥이다.  
잘리다 만 햇바닥을 더 부러뜨리자. 죄책감처럼 갈수록 뭉툭뭉툭해지자.

마지막 밤. 너무 많은 입이 있던 방.  
생각나?

어떤 종류의 다정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  
사람처럼 활을수록 뾰족해지는 말이라고 말한 것.

그러니까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육하원칙처럼 묻고 또 묻는 놀이, 같은 것.

## 서정

김연필

무언가가 팔락인다

큰 나무 아래서 팔락인다

팔락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했다 저것은 꽃이야 아니 보자기야 아니 새야 새의 날개야 아니 비닐봉지야 아니 귀신이야 도깨비야 나뭇잎이야 나뭇가지야 아니 우리를 보고 웃고 있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고 웃고 있었다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다 얼굴이 희고 그림자가 흐리다 그 사람을 보며 우리는 말했다 귀신이야 도깨비야 아냐 나뭇가지야 아냐 비닐봉지야 그래 도 그 사람은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고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을 보며 말했다

팔락이는 것이 사람을 닮았다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 뒤에 얼마나 깊은 심연이 있는지 모른다 어느 나무나 그 뒤에는 심연이 있다 사람을 닮은 것이 팔락이는 나무는 더 그렇다 따라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우리도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어떤 심연에 가라앉아 있다

심연 속에서 무언가가 팔락인다 나비다 벌레다 귀뚜라미다 아니 바퀴다 바퀴는 팔락이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팔락이는 것에 대해 여러 벌레 이름만 붙인다 심연 속에서 팔락이는 것은 벌레여야 마땅하다 우리는 어차피 돌아오지 못할 길을 들어왔다 팔락이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너무 먼 곳으로 들어왔다

큰 나무가 팔락인다

팔락이며 멀리 떠나간다

우리는 계속 심연에서 팔락이는 나무만 바라본다

팔락이는 나무 위에서 팔락이는 사람의 표정을 바라본다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곳에서 팔락이는 얼굴에게 말한다 팔락이는 얼굴은 아무 표정 없다 아무 대답 없다

어떤 숲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팔락인다 큰 나무에 걸려서 팔락인다 팔락이며 웃는다 너를 보며 웃는다 너는 대답하지 않는다

조금씩 너의 얼굴에서 그림자가 사라진다 숲 속에 해가 뜨지 않는다

## 시에스타

김준현

1

방 안에서 웅덩이가 자랐다  
그곳으로 이끼가 옮았다  
불면이 숨소리를 듣는 습관이라면  
지금은 모든 펜이 곤두선 안테나가 되는 순간  
불청객들의 귀 움직임을 증계했다

2

편지와 허공을 몇 번이나 해부했지 혼잣말로 못 쓰게 된 몸과 몸들에서 땀 냄새가 나고 인  
도인 친구는 방을 옮겼어 없어도 되는 장기와 없어도 되는 신앙 같은 거, 있다면 숨기지 마 어  
둠에 가까운 피부색으로 나는 가끔씩 없는 사람 동양 남자가 내 손목을 쥐고 202호, 203호, 오  
늘은 204호…… 좁은 방을 국적으로 둔 사람들 나는 몇 번 방의 선물일까

포장과 속옷은 색깔을 맞춰야 해 나는 좀 더 깊어진 웅덩이에 손을 담그지 손 하나가 다 들어  
가지 않는 깊이가 나의 음부의 깊이 이 시간이면 거울은 자주 성격이 변하지

깜박이는 것들은 모두 맥박을 닮은 것들

남자의 차 림미러, 눈꺼풀 아래로 기른 검은 손톱  
깜박거리는 신호등 세 가지 빛  
따로 떨어지려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들  
쿠마리 출신 후배가 길들인 별들

8

빛에 취해 돌아오면 몇몇 이불과 여자들은 웅크린 공동묘지 누가 그들의 눈동자를 훑었을까  
주사 놓을 혈관을 찾을 줄 안다면 그곳은 구름으로 가는 통로일까 종이가 모자랄 때까지 몸을  
다 쓰고 나면 나는 자주 물을 마셔 커튼 사이로 빛이 새면 나는 무릎을 접고 웅크리는 하수도  
몸 밖으로 물이 새는 소리……들리니?

노을이 지고 핏기가 빠진 허공으로부터 나는 천천히 알아지고 있는 중이다

## 나무의 약속

박성준

피아노를 치면서 나무를 생각합니다. 대지는 의견을 감추는 법을 가르칩니다. 고백이 아니더라도, 음악은 나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 다. 산을 오르는 사람은 대체로 산을 알지 못하고, 직립을 한 이후부터 종이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가 희박해집니다. 산길은 누구 혼자서 높이를 이해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무의 후렴은 할애된 공간보다 먼저입니다. 이를테면 석공이 돌 속에서 부처를 꺼내 왔다는가 향불 연기 속에다 절간을 지었다는 풍문이 풍경소리로 노승의 그림자를 흔들었다고 한들, 피아노는 여전히 뿌리가 없습니다. 피아노의 불편은 계단입니다. 각자의 몫으로 넘어지기 좋은 그림자와 오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무였을 때를 생각하며 엽록으로 울렁거리는 느낌의 명치 곁에는 잘 깎아 놓은 불상이 있습니다. 피아노가 모르는 것을 나무가 알고 있습니다. 희망은 흥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불상은 토르소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나무를 두드리면 목탁소리가 들리고 그 파동 속에는 유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피아노가 잎사귀를 틔우려고 대지와 대결을 합니다. 피아노가 산마루에 기우뚱거립니다. 피아노는 웬지 그늘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소년들의 공화국

최백규

총구를 겨누던 손가락들이 막사로 향하는 저녁  
 각자 죄 지은 손을 모아 착한 기도를 했다  
 심장에 총알이 박히면 많이 아플까요  
 지금 들리는 전투기 소리는 이곳을 바라보는데  
 도대체 어디 계세요?  
 교회는 하늘로 칠해져 있었다, 십자가만이 먹구름이었다  
 우리가 찾아 헤매던 신은 빗방울로 떨어졌다

익숙한 것들이 밤마다 너무도 쉽게 사라졌다  
 아직 따뜻한 시체들은 몇 줄의 결과로 소각되었고  
 어디에도 과정은 적히지 않았다  
 죽은 동기의 관물대를 치우며 느린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은 자들은 여전히 사람 죽이는 법을 배우며  
 아침에 눈뜰 때마다 살아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우린 이곳에 보기 좋게 버려졌어! 철책을 붙잡고 소리쳐도  
 전쟁은 현재진행형, 메아리조차 없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둘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잼다

태풍의 눈을 스치는 동안 스무 번째 여름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빗속에서 후렴이 긴 노래로 달려가던 그 밤, 소년들은  
 새벽과 충돌하기 직전에 모두 죽어버렸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Fin.)

소년들의 공화국,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와 싸우고 있었다

## 24시간

임재영

8월 19일 pm 2:13

사건 발생

8월 19일 pm 3:19

“기어코.”

“네. 아저씨. 기어코.”

자신이 어떤 일을 항상 예감하고 있었음을, 그 일이 터진 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때서야, 사소하게 넘겼던 많은 일이 사실은 징조였음을 알게 된다. 마치 추리 소설을 읽는 중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범인이 드러나고 나서야 힌트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에 놀라는 독자처럼 말이다. 선이가 차웅의 어머니를 죽인 것이 그러했다. 돌이켜 보면 심상치 않았던 오늘 아침 식사부터, 얼마나 많은 징조가 있었던가? 경찰은 오랫동안 꾸어왔던 악몽이 이루어진 것 같았다. 그는 이를 악물며 차웅에게 물었다.

“몇 시였니.”

“2시요.”

경찰은 무릎을 꿇고 현장을 살폈다. 그러나 한 눈에 봐도 모든 게 노골적이었다. 흥기로 사용된 지팡이 같은 피로 얼룩진 채 주검 곁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머리 장식이 해골 모양이었다. 더 자세히 볼 것도 없었다. 경찰은 저 칼을 알고 있었다. 저 칼을 사기 위해 선이가 얼마나 고생했든가? 몇 푼 안 되는 용돈을 모으고, 도검소지허가증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칼을 샀

을 때, 또 얼마나 좋아했던가. 표정이 별로 없던 선이가 저 칼을 받고 머쓱하게 짓던 그 웃음이 아직도 생생했다. 경찰은 두 눈을 한 번 꼭 감았다가 뜨고는, 이어서 시체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칼보다 낮이 익었다. 차웅의 어머니는 무척 평온한 얼굴로, 배꼽에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잠자듯 누워 있었다. 경찰은 차웅이 마치 살아계신 어머니를 편히 모시듯, 아주 정성스레 그녀를 정돈했을 광경이 눈에 훤히 보였다. 덕분에 그녀는 낮빛이 약간 창백한 것만 제외하고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등 뒤로 고여 있는 피 웅덩이와 앞췌에 물들어 있는 피 얼룩이 그녀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상처는 왼쪽 젖가슴 아래에 하나뿐이었다. 등에 난 구멍까지 합하면 두 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칼이 길어 등까지 뚫렸다. 즉사였다. 살인은 빠르고 주저 없이 일어났다. 상처는 아직 굳지 않았고, 손으로 누르니 피가 조금 새어 나왔다.

경찰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양재 코스트코 부설 주차장이었다. 주차장이라고는 하지만, 산 아래에 펼쳐진 넓은 공터에 양철 울타리를 친 것에 불과했다. 주차선도 그어져 있지 않았고, 차들은 저마다 알아서 듬성듬성 주차해 있었다. 사건 현장은 주차장의 산 쪽 귀퉁이었다. 입구는 멀었다. 쇼핑하러 온 이들은 당연히 입구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는 곧바로 코스트코를 향해 떠났다. 쇼핑하고 온 이들 역시 산 물건을 신고 집으로 가기 바빴다. 아무도 이렇게 구석진 곳, 큰 나무 그늘에 뭐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열기 속에서서는 더욱 그랬다. 실제로 차웅과 경찰이 서 있는 동안 몇 대의 차가 오갔지만, 이곳을 잠깐이라도 쳐다보는 이는 없었다. 이곳은 사각이었다. 선이가 위치는 잘 골랐구나……. 경찰은 뒤에 서 있는 차웅을 돌아봤다.

“왜 막지 못했니? 그 비실거리는 놈을.”

차웅은 키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어깨가 무척 넓었고 가슴이 잘 발달해 있었다. 견고하고 균형 잡힌 몸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동작은 일절 하지 않았으며, 움직일 때는 산 같았다. 곰 한 마리를 돌 안에 구겨 넣고 사람 꼴로 다듬으면, 그게 바로 차웅이었다. 그런데 선이는 겨울나 무처럼 깡마른 아이였다. 차웅이 손만 휘둘러도 가랑잎처럼 날아갈 몸통이었다. 경찰은 그런 선이가 차웅을 제쳤단 게 믿기지가 않았다. 차웅이 푹푹 끊어지는 말투로 답했다.

“스틴건. 선이가 이리로 우리를 불렀어요. 잔뜩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해골 후드티, 지팡이, 은반지들, 목걸이……. 저는 어디 공연 가느냐고 인사했고, 선이는 제게 스팀건을 먹였습니다. 전 쓰러졌지요. 그러나 의식을 잃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웅이 양팔을 벌리는 것으로 뒷말을 대신했다. 마치,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라고 말하는 듯이.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의 눈앞에서는 바로 그 말하지 않은 장면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그는 그 장면을 말로 할 수 없었다. 그건 찰나의 순간이었다. 선이가 칼을 빼 든다. 그리고 엄니가 겁에 질리기도 전에, 그녀의 가슴을 찌른다. 칼이 늑골을 지나, 등으로 빠져나온다. 엄니의 몸은 기괴한 각도로 꺾인다. 엄니의 짓눌린 신음이 들린다. 선이는 칼을 빼지 않는다. 엄니는 무척 불편한 자세로 쓰러진다. 그리고 선이는 떠난다. 이 짧은 광경은 다음 날 부산의 락 페스티벌에서 선이를 발견하기 전까지, 차웅의 눈앞에서 한 치도 바뀌지 않은 채 무수히 되풀이되었다. 그 정경은 불덩이가 되어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고, 너무 커서 목구멍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차웅은 침묵했다. 그렇게 불덩이는 불똥 하나 튀기지 않고 안으로만, 깊이로만, 타오르고 있었다. 경찰은 차웅의 눈에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어지러웠다. 몸에 중심을 잡기 힘들어 나무에 기대었다.

“죽일 거냐.”

“네.”

“어디 간 줄 알고.”

“글쎄요.”

“날 믿지 못하는 구나.”

“네.”

“경찰에…… 말기면 안 되겠니. 약속하마. 꼭 잡을 테니, 그래서 정당한 심판을…….”

“이건 제 권리입니다.”

경찰은 잠시 차웅을 바라보았다. 그는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찢러 넣고, 죽은 어머니의 머리맡에 서서,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표정도 몸짓도 없었다. 입술도 움직이

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무덤 앞에 서 있는 묘석 같았다. 바위에 새겨진 글자들은 천 년을 간다. 경찰은 그를 막을 수 없었다.

“2시 정각, 확실한 거지? 목격자로서 말해야 한다.”

“여기 들어올 때 2시가 좀 안 됐었으니까, 아마 그쯤이겠죠.”

“그럼, 명심해라. 내일 2시까지다. 법이 허락한 시간이다.”

“알아요.”

“2시가 넘어가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

그에게 권리가 있었다. 법적인 권리가. 24시간 이내에 선이를 죽이면 복수법에 따라 그는 무죄다. 차웅의 말대로, 복수는 그의 정당한 권리행사였다. 도리어 권한이 없는 건 자신이었다. 그는 신입 경찰을 뽑는 면접 자리에서,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즐겨 하곤 했다. 면접자들은 저마다 인정과 법 사이에서 합격에 이르는 답을 모색하였지만, 경찰이 원하는 건 언제나 ‘전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답이었다. 그것이 정답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운명이 경찰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삶으로 대답해야 했다. 법에 따르면, 그는 이 수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정답은 이미 주어진 셈이었다. 게다가 그는 한평생 법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법을 맹목적으로 기계처럼 따랐다는 것도 아니다. 그는 법이 정의로 향하는 유일한 길임을 의심한 적 없었지만, 동시에 법이 장님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는 평생 자기 일이 눈먼 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리고 이제껏 그런 신념에 비추어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가 그토록 헌신했던 법이 차웅에게 권리를 주면서, 그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여기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상황보고를 하고, 집에 돌아가, 술이나 마시며 아들의 생사가 걸린 밤을 지새우라고 명하고 있었다. 경찰은 그럴 수 없었다.

“나도 따라가겠다. 경찰로서가 아니다. 방해는 안오마.”

“예. 안 오시면 끌고라도 가려 했어요. 가죠.”

차웅은 발걸음을 옮겼다. 당황한 건 경찰이었다.

“지금? 네 어머니를 여기 내버려두고?”

“방해하지 않겠다면요.”

“아니, 차웅아. 이진 방해가 아니라, 이 날씨에, 말이 되니? 최소한 병원에 안치라도…….”

“엄니의 몸은 아저씨 부하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요. 난 엄니의 넋을 위로하려 갈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차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로 향했다.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린 것은 경찰이었다. 그는 이 폭염 속에서 개처럼 홀로 버려지는 그녀를 떨치기 힘들었다. 그러나 차웅은 벌써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고, 경찰은 이를 악물고 차에 탈 수밖에 없었다. 차웅은 곧장 차를 경부고속도로로 몰았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는 침묵 속에서 달렸다. 8월의 하늘은 뜨거웠다. 차에는 그늘이 없었다. 차 안으로 불길 같은 햇빛이 고스란히 쏟아졌다. 그들은 산책로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창밖에도 아지랑이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러나 차웅은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 냉기가 죄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런 날에는 부패가 빠르다. 차웅은 버려져 있을 어머니의 몸을 떠올리고 있었다. 넋보다는 못하다 하여도 어머니의 몸 역시 어머니이다. 그는 차마 에어컨을 틀 수 없었다. 그렇게 삼십여 분이 지났을 때, 경찰이 부하의 연락을 받았다. 시체를 근처 병원에 안치했다고 했다. 긴장하고 있던 차웅의 어깨에 힘이 빠졌다. 그가 에어컨을 틀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8월 19일 pm 4:53

복수법이 시행된 지 벌써 6년이 지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말썽도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칙도 상당수 조절되고, 판례도 많이 쌓여서, 최초의 낯섦과 기이함을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사람들은 이 법을 좋아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 사람들은 너무 많이 살해당했고, 법은 아무것도 풀어주지 못했다. 법은 자신의 관심사가 체계뿐이며, 사람 따위에는 아무 관

심도 없다는 것을 자꾸만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만족스럽지 않았고, 법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으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복수하는 내용의 드라마와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법은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하루를 주기로 했다. 단 하루. 복수의 시간. 그 24시간 동안은 희생자의 가족이 살인자를 직접 찾아내 죽여도 무죄가 되었다. 옛날 험준한 산맥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던 복수의 관습이, 현대에 와 다시 부활한 셈이었다. 물론 실제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건 힘든 일이었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았다. 살인 시각이 정확해야 했고, 복수 당시가 정확히 몇 시였는지 입증할 증거나 증인도 필요했다. 게다가 이 법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권리'만을 주는 것뿐이어서, 공권력의 도움은 일절 받을 수 없고, 하루가 가기 전에 범인이 검거되면 현실적으로 '권리행사'는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런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는 생각보다 빈번히 이루어지곤 했다. 대중들은 그때마다 환호했는데, 특히 가난한 이가 부자나 권력자에게 '권리행사'에 성공하면 영웅 대접을 받았다. 결국, 모두가 이 법을 좋아했다. 희생자들은 복수의 분출구가 있어서 좋고, 정부는 법체계의 비인간성을 은폐할 수 있어서 좋고, 정치가는 인기몰이 구실을 하나 얻어 좋고, 대중들은 여흥과 희망을 얻어서 좋았다.

(소설의 일부. 원고지 30매 분량)

## 휴먼 리소스

신박수진

〈등장인물〉

한 팀장 (청년)

김 부사장

수집요원

여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짧은 설명〉

이 이야기는 자본주의 사회, 즉 지금 우리 사회가 변치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일어날지도 모르는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날을 바탕으로 쓰인 상상적 이야기로 인적자원재활용센터에서 벌어지는 일화를 통해 디스토피아적 미래상을 보여주고자 한 희곡이다.

1장

무대 한가운데 붙어있는 플랜 카드 '재활용은 국가의 힘이다!'

(무대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커다란 재채기 소리. '에이취, 에에, 에이취' 간지러운 듯 코를 비비며 등장하는 한 팀장.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손수건으로 코를 '뽕'하니 풀고는 더럽다는 듯이 멀쩡이 손수건을 들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다가 다시 '에이취' 재채기. 들고 있던 손수건으로 입을 닦고는 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코를 비비며 멍청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다 관객들을 발견하곤 말한다.)

한 팀장: 어우, 깜짝이야. 누구세요? 아, 아. 너네, 신입사원이구나? 어, 어. 그래 편하게 있어. (의자를 끌고 와 거만하게 앉는다.) 나는 여기 팀장이야. 한 팀장. 오늘 신입사원 교육 있구나? 그래, 교육을 잘 받아야지 훌륭한 직원이 되는 거야. 자 따라해봐. 재활용은 국가의 힘이 다. 더 크게. 그렇지. 아주 꽤기들이 넘쳐. 좋은 자세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재활용 사업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최고 좋은 사업이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도 좋다 이거야. 그래, 신입이들. 수집요원이야 심사관이야? 아직 안정해졌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수집요원으로 현장에서 7년을 일하고 심사관으로 3년을 일한 재활용 사업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지. 아 뭐 그렇다고 그렇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볼 필요는 없어. 사람이 원래 능력이 있으면 다들 그렇게 중요한 직책에 앉기 마련이야. 너네도 열심히 일하면 언젠간 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등장하는 김 부사장)

김 부사장: 한 팀장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근무시간에 한가롭게 퍼질러 앉아서 말이죠.

한 팀장: (벌떡 일어나서) 부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저는 지금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김 부사장: 한 팀장이 왜 신입사원을 교육합니까, 가서 심사준비 안 해요? 설마 오늘이 공개심사 날이란 걸, 잊은 건 아니겠죠? 신입사원들이랑, 중요한 외부손님들이, 죄.다. 한 팀장님 심사를 참관 할 거란 말이예요. 실수 없이 똑바로 진행해야한다고요!

한 팀장: 아, 네. 그럼요. 공개심사를 잊다니요. 그럴 리 없죠. 실수 없이, 똑바로! 진행 하겠습니다.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한 팀장이잖아요.

김 부사장: (나가려는 한 팀장을 불러 세우며) 한 팀장님, 잠깐만요. 이리와 보세요.

한 팀장: 네? 부사장님.

김 부사장: 옷이 이게 뭐니까? 정장은 깔끔하게, 넥타이는 똑바로, 넥타이핀은 어디 있어요? 시계는, 구두는? 좋아요. 행거 칩은? 여깁네. (한 팀장의 주머니에 빠져나온 손수건을 빼서 잘 접어 재킷 주머니에 넣어준다.) 우리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건 이미지에요.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 왜냐하면 우리는 업계 최초로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럭셔리 재활용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고급스러워 보여야 해요. 당연히 우리 회사의 얼굴들인 사원들도 마찬가지죠.

한 팀장: 럭셔리! 카~ 그럼요. 잘 알죠. 부사장님.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이게 저도 나름

신경 쓴다고 쓴 건데, (뽐내며) 이래 봐도 이게 돌체 앤 가바나 본사 수석 디자이너가 s/s 패션 쇼를 위해 직접 디자인한 리미티드 에디션 시즌 한 정품 프랑스제!... 제품인데.... 그렇게 보이진 않죠....

김 부사장 : 네, 한 팀장님,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한 팀장님은 뭐랄까,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을 걸쳐봐도 몸매가 문제지, 얼굴이 문제지, 그것보다 약간 저렴해 보이는, 뭐랄까, 타고난 싹티 비슷한 게 흐르는 것 같긴 하지만, 뭐 노력하면 더 나아지겠죠. 어쨌든 우리는 좀 더 럭셔리하고, 급이 다른 재활용 사업을 만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쓰레기에도 엄연히 급이 있단 말이에요. 밸런타인 30년 산 병이 참이슬 빈병이랑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 회사는 저급한 쓰레기는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질이 좋은 가죽 소파는 재활용하면 가죽 지갑이 될 수 있지만, 싸구려 천으로 만든 소파는 기껏해야 식탁보나 될까 말까거든요.

한 팀장 : 그럼요. 부사장님. 모두 맞는 말이죠.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쓰레기에도 급이 있고말고요.

김 부사장 : 알았으면, 오늘 일 다 끝나고 저 촌스러운 슬로건부터 좀 바꿔요.

한 팀장 : 슬로건이요? 슬로건을 바꾸시게요? 저건 회사 창립일 부터 저기 쪽 걸려있던 건데, 뭘로 바꾸시게요?

김 부사장 : 리~사이클~ 이즈~ 파워~ 오브~ 스테이트~. 필기체로.

한 팀장 : 아,

김 부사장 : 영어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한 팀장 : 그, 그렇죠.

김 부사장 : 그럼 이제 어서 가 봐요.

한 팀장 : 네? 또 어디를요?

김 부사장 : 어디긴요! 심사 준비 하러 가서야죠! 한 팀장님!

한 팀장 : 아, 네. 그렇죠. 갑니다! (관객들에게 품 잡으며) 재활용은 국가의 힘, (부사장 눈치를 한번 보고) 지금 갑니다. 가고 있어요~

(한 팀장, 퇴장하면 부사장이 관객들에게 말한다.)

김 부사장 : 자, 여기 오늘 저희 신입사원들 말고도 외부초청인사분들이 다수 오신 걸로 아는

데, 어디 계시죠? 아, 거기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쓸모없이 버려진 자원을 수집해서 재활용센터로 보내거나 폐기처분하는 일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년 전에 국책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5년 전부터 민간 기업으로 바뀐 사업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계시는 이곳은 재활용 심사원의 심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의 사업시스템을 더욱 자세히 설명 드리기 위해 수집되어온 자원을 심사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편안히 앉아서 관람하십시오. 그럼 전 심사를 마치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김 부사장 퇴장하면, 킁킁거리며 탁자를 들고 나오는 한 팀장. 이어 의자 두개도 끌고 와 무대 위에 세팅하곤 의자 하나에 털썩 앉아 핵핵 댄다.)

한 팀장 : 아이고, 죽겠네. (자세를 바로잡고, 목소리를 깔며) 자, 준비 됐으니 들여보내세요.

(무대 뒤에서 들리는 여자 목소리. ‘이거 봐. 내 발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곧 튕기듯이 무대 위로 나오는 30대 후반의 여자.)

여자 : 사람을 다짜고짜 이렇게 끌고 와도 되는 거야? 여기 대체 뭐하는 데야! 당신들 누구야!

한 팀장 : 아, 거 시끄럽게. 자, 진정하고 앉아요. 나는 지금부터 프로페셔널하고 씩박한 심사를 진행할 한 팀장입니다. (관객들을 향해 눈 찡긍)

여자 : 심사?

한 팀장 : 그렇죠, 심사. 예, 예 에이취. 에이 이놈의 감기. (부 사장이 행거칩으로 꽃아준 손수건을 빼서 코를 풀곤 다시 바지 주머니에 넣는다.) 어디서 수집 되 왔어요?

여자 : 지금, 뭐라고?

한 팀장 : 어디서 수집 되서 왔냐고요.

여자 : 지금, 수집이라고 했어?

한 팀장 : (여자에게만 속삭이듯) 저기, 이봐요. 오늘 심사는 꽤 중요한 심사거든요? 신입이들이 보고 있는데, 좀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나도 각이 좀 살지. 그러니 협조 좀 해줘요. 질문에 답만 재깍 재깍 해주면 점수도 좀 잘 드릴게. 서로 돕고 삽시다.

여자 : 여기, 어디야. 설마, 여기 재활용심사원이야?

한 팀장: 잘 아네. 그럼 나한테 협조 좀 해요. 이 심사가 무슨 심산지는 알거 아니에요.

여자: 여기가 정말 재활용 심사원이야? 내가 지금 여기에 수집 되서 온 거야?

한 팀장: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만들지 말고. (다시 속삭이며) 지금 여기 보는 눈이 많다니깐요.

여자: 내가 왜! 내가 왜 수집이 돼? 내가 대체 왜?

한 팀장: 그쪽은 쓸모없는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수집돼 온 거죠. 왜냐면 여기는,

여자: 인적자원재활용심사원이잖아! 나도 알아! 여긴 인간쓰레기들만 오는 데라고! 여기에 내가 왜와! 날 왜 잡아와!

한 팀장: 왜냐니. 이미 알아서 다 말했네. 여긴 인간쓰레기들이 오는 곳이고, 그쪽이 여기에 수집 되서 왔다는 건, 당연히 그쪽이,

여자: 난 인간쓰레기가 아니야! (한 팀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너,

한 팀장: 뭐, 뭐. 나요? 나 뭐요?

여자: 너지?

한 팀장: 뭐가요?

여자: 너 맞지? 나 모르겠어?

한 팀장: 내가 어떻게 그쪽을 알겠어요. 난 그쪽하고는 완전 다른 부류의 사람인데.

여자: 달라? 나랑? 나 모르겠어? 10년 전에!

한 팀장: 10년 전에 뭐요?

여자: 너야, 난 똑똑히 기억해. 너 때문이거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었다고, 이 개 쓰레기 같은 놈아.

한 팀장: 뭐야, 뭔데 나한테 욕을 해? 나는 그쪽이 그렇게 함부로 욕할만한 시답잖은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쓰레기로 수집돼온 주제에, 심사원한테 그런 막말을 해? 난 팀장이야 한 팀장! 팀장 되는 게 쉬운 줄 알아?

여자: 날 몰라? 10년 전엔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니가 이 자리에 있었어. 인간쓰레기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였다고! 이 버려지 같은 놈아!

한 팀장: 이 여자가 대체 뭐래!

(무대 암전)

(희곡의 일부. 원고지 30매 분량)

## 숙소 배정

### 2층 : 사무처, 작가 숙소

201		202		203	
A	B	A	B	A	B
사무처	남자 작가	사무처	여자 작가	(졸업생) 안여진 이하림	

### 3층 : 남자숙소

301		302		303	
A	B	A	B	A	B
(봉재) 강예송 김동혁 손현웅	(1조) 윤성훈 한승용	(2조) 김용덕 김현승 전인철 함준형	(3조) 김동영 김선우 박준영	(4조) 김선웅 송근직	(5조) 류연웅 강요한 김승현 최현준

### 4층 : 여자숙소

301		302		303	
A	B	A	B	A	B
(봉재) 강지원 김유진 장윤정 조인영	(1조) 강나은 강진경 박다정	(2조) 백하은 최은진	(3조) 이현지 이승현	(4조) 김은재 서한나 최맑은샘	(5조) 배유진 이운주

## 분반별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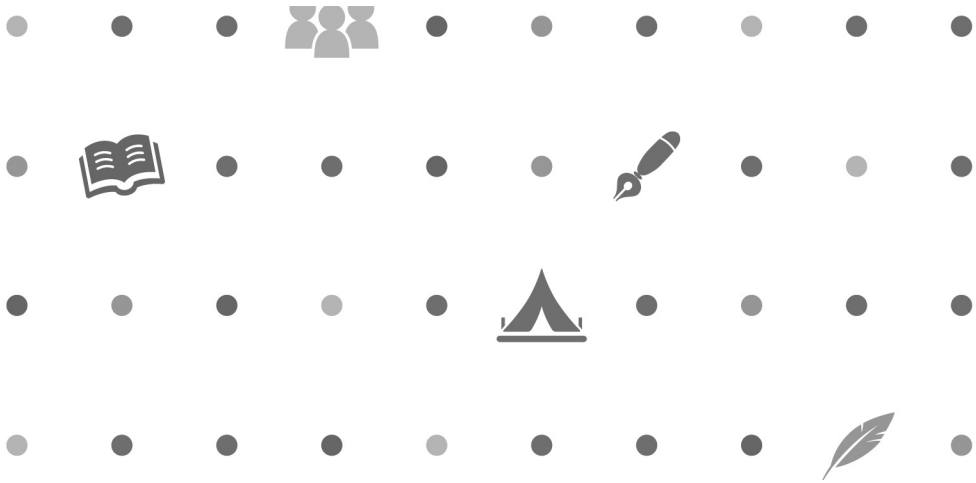
분반	강사	봉사	참여자
시	윤석정	강지원	김승현(Minik), 김은재(김은재), 박준영(가다가마느라), 전인철(lullaby), 최맑은샘(희), 최현준(적몽), 김용덕(새벽별)

분반	강사	봉사	참여자
이야기	김보영	장윤정	강나은(난니), 강진경(파란색스머프), 박다정(P군), 배유진(유진과유진), 서한나(슈뢰딩거), 이승현(늘운), 이운주(이운주), 최은진(최은진), 김선우(서늘해), 김선웅(라망), 류연웅(R영), 송근직(범고래의여덟번째이빨), 윤성훈(중독개미), 함준형(품달)

분반	강사	봉사	참여자
비평	김미정	김동혁	강요한(푸르딩딩), 한승용(韓雪)

분반	강사	봉사	참여자
생활글	이계윤	손현웅	김현승(문학황제), 이현지(쫄꼬미)

## 글쓰기 클리닉



## 시 분반 강의 자료 (강사\_윤석정)

### 오페라 미용실

윤석정

능선으로 몰려든 검은 구름이  
귀밑머리처럼 삐죽삐죽 나온 지붕에 한발을 걸친다  
그 사이, 좁다란 골목길이 계단을 오르며 헉헉 숨 내쉬는 곳에  
할아범 측백나무와 오페라 미용실이 마주 서 있다  
그는 매일 미용실 바깥의 오페라를 감상한다  
미용실 눈썹처마에 모아둔 나뭇잎 음표들이 웅알거릴 때  
가위를 갈다가 번뜩이는 악보의 밀동,  
백지에 오선을 긋던 어머니는 병세를 자르지 못해  
머리에 자란 음표를 모두 빼내 옮겨 적었고  
연주가 서툰 아버지는 가파른 골목길로 내려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해 오페라를 관람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은  
측백나무에서 음표를 떼어 내던 양상한 어머니를 목격하였다  
어머니를 마구 흔들고 지나간 바람이 옥타브를 높이며  
구름 떼를 몰고 오기도 했다  
미용실 문이 열리자 그는 내내 벌려 예리해진 가윗날을 접는다  
머리술이 적은 손님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갈 때마다  
음치인 울음이 미용실에서 뛰쳐나간다  
동네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 길에선  
울음이 두근거리는 아리아로 변주해 울려 퍼지고  
측백나무에서 마지막 남은 음표가 눈썹처마에

떨어질 때

낮은 지붕 위로 함박눈이 음계 없이 쏟아진다

나뭇가지 오선지 끝에 하얀 음표가

대롱대롱 매달리고

악보에 없는 동네 사람들이 돌림노래처럼

몰려나와

희희낙락 오페라를 구경한다

## 국적 불명인 의자

윤석정

인도 서벵골주 다르질링의 티베트 난민촌 구부러진 길모퉁이 집 담벼락에서 꾸벅 졸고 있는 의자 담쟁이가 의자에 앉아 있다

담쟁이가 의자에 앉아 Em개질을 한다 시바가 몇 개 중 하나의 손을 던지시 붓다의 어깨에 얹고 손가락을 움직인다 붓다의 손가락은 담쟁이 잎을 지그시 누른다

히말라야의 실몽당이에서 술술 풀려나온 담쟁이는 뜨개질에 열중하다가 시바의 팔 길이를 재보고 붓다 소맷자락의 부피를 짐작해본다 내가 눈길을 건네자 담쟁이는 나의 바지 기장을 살핀다

난민촌을 한 바퀴 둘러보고 와보니 담쟁이를 어루만졌던 예수의 손길이 있다 의자는 잠결에 관절에 박힌 녹슨 못을 보풀처럼 빼내더니 뜨개질을 하는 담쟁이를 삼킬 듯 긴 하품을 한다 나는 의자 입속에 고인 말줄임표들을 본다 의자는 담벼락에 기댄 채 눈 감고 말 줄이고 국적 불명인 험거운 옷을 입는다

## 어슬렁거리는 고양이

윤석정

초승달 각막에 달고 천연텍스레 꼬리를 흔드는 고양이 심장에서 나온 야릇한, 허기진 소리가  
내 영혼을 굶어댄다 지난 꿈에 죽은 자들이 다녀간 후 몸 웅크렸던 나는 골목을 어슬렁거린다

사랑한 만큼 발톱을 세우고 사랑의 폐와 내장을 파먹는 고양이 검붉은 피가 고인 살덩이를 마  
저 먹고 검붉은 입술을 바닥에 스윽 닦으며 여전히 골목을 어슬렁거리고 두리번거린다 내 안  
에선 노상 뜨거웠던 사랑이 우르릉거린다

각막에 달이 차오르면 가느다란 혀로 나를 핥아먹고 송곳니로 영혼을 갉아먹는다 사랑의 뼈  
만 골목마다 텅그렇게 남겨놓는 내 지옥을 어슬렁거리는 고양이

## 봉도(蓬島)

윤석정

나는 나를 떠도는 섬  
시가 된 나는 떠돌이 섬  
시 행간에 숨어 사는 섬  
촘촘한 추억을 향해하는 섬  
순간과 순간 사이에 사는 섬  
시작과 끝이 한 몸인 섬  
나는 나를, 기억을 잃어버린 섬  
입 속에 나를 감추고 나를 노래하는 섬

나는 나를 떠도는 섬  
시가 된 나는 떠돌이 섬  
내가 있거나 내가 없는 섬  
죽음이 언어를 낳는 섬  
혹은 언어가 죽음을 낳는 섬  
나는 시가 된 섬  
나는 떠도는 영혼의 섬  
태어난 적이 없는 언어를 찾아다니는 섬

## 단단해지는 법

윤석정

물고기의 뼈는 가시라는 것  
 구운 생선을 발라 먹는데  
 가시 하나가 목에 걸려 꺼끌꺼끌할 때  
 문득 알게 된 것  
 그리운 것들도 가시라는 것  
 자꾸 마음에 걸려 나오지 않는 것  
 빼내려 하면 할수록 더 아픈 것  
 마음의 뼈는 그리운 것  
 물고기처럼 마음도 뼈를 가지고  
 너에게 헤엄쳐 갔다 올 때  
 네가 내 마음에 걸린다는 것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배 속으로 꾸역꾸역 삼켰을 때  
 잊어야 한다는 것  
 그리운 것들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흐르는 눈물의 뼈도 가시라는 것  
 가시는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뼈를 감싸는 모든 살들은 물렁물렁하다는 것  
 내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고 삼키려 할 때  
 단단해지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  
 마음의 뼈는 물렁하다는 것

## 이야기 분반 강의 자료 (강사\_김보영)

- \* 강의 + 합평회로 진행합니다.
- \* 만화는 재미로 봐 주세요.

### 합평회 준비

- 혹시 작품을 출력해서 읽으시는 분들은 연필로 체크하며 읽어주세요. 형식은 자유입니다. 읽으면서 아무거나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주세요. 마음에 드는 문장에 동그라미를 하는 정도로도 좋습니다. 합평이 끝난 뒤 본인에게 선물해주세요. (강제는 아닙니다.)
- 모두 읽어와 주시면 좋지만, 시간이 없어 정 어려우신 분들은 최소한 세 편 이상을 읽어주세요.
- 모두 읽어오신 분께 '호연피망'(4인 단편선) 책 한권, 세 편 이상 읽어오신 분께 신년 엽서 하나씩 드립니다.

### 합평회 들어가기 전에 보면 좋은 글 :

(- 어슐러 르귀의 저서 『글쓰기의 항해술』, 「합평회」 부분에서 발췌, 요약)

### 합평하기

논평은 다음과 같이 하라.

- \* 짧게
- \* 차례대로
- \* 중간에 남의 말을 가로채지 말 것.
- \* 작품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것.
- \* 개인적으로 평하지 말 것. (작가의 성격이나 의도를 당신이 얼마나 알고 있든 논평과는 관계가 없다. 토론의 대상은 작품이지 작가가 아니다.)

- \*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고 작가에게 말할 것.
- \* 쓸모 있는 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비평은 긍정적일 필요는 없지만 작가가 퇴고하면서 쓸 만한 사항이어야 한다. 부정적인 비판만 퍼부으면 작가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작가가 길게 해설해야 하는 질문을 던지지 마라. 질문할 때에는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라.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긴 질문거리가 있다면 원고에 적어 작가에게 주라.
- \* 작품의 어디에서 헛갈렸거나 놀랐거나 성가셨거나 즐거웠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무엇이 잘 먹혔고 무엇이 잘 안 먹혔는지를 작가에게 말하라.
- \* 뭉가를 고치는 방법을 제안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려면 정중하게 하라. 설령 당신이 고칠 방법을 확신한다고 해도, 그 이야기의 주인은 작가이지 당신이 아니다.
- \* 작품을 읽고 떠오르는 문학이나 영화에 대해 말하지 말라. 작품 자체로 존중하라.
- \* 반복되는 논의를 하지 말고 토론을 확장해라. 만약 당신이 하려던 말을 누군가가 먼저 했다면, 당신은 “저는 아무개와 무엇무엇에 대해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말하고, 이유를 설명해라.

## 논평 받기

- \* 합평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작품의 작가는 침묵해야 한다.
- \* 사전 설명을 하거나 해명하지 마라.
- \* 질문을 받았다면 가능한 간결하게 답하라.
- \* 논평을 받는 동안, 사람들이 당신 글에 대해 하는 말을 메모해라. 아무리 한심해 보이는 말 일지라도 적어라. 나중에 이해가 될 수도 있다.
- \* 토론이 모두 끝났을 때 발언을 해도 된다. 방어적으로 나가지 마라. 다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묻고 싶은 점이 있다면 질문하라. 대체로, 당신의 작품을 부지런히 비평해 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감사합니다.”다.
- \* 작가가 자기 작품이 비평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변명이나 해설이나 말대꾸나 꼬투리잡기를 하지 않기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도 그러지 않으면 들을 수 있게 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듣는 일이다. 당신은 그러기 위해 이곳에 왔다.

## 강의 1 : 내 글 돌아보기

- 글틴에서 평하면서 자주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 좋은 소설의 요건은 좋은 인생의 요건과 닮아 있다.

: 돈은 못 벌어도 사람이 될 수 있다(오예)

: 사람이 망가졌다면 좋은 소설을 쓰려 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자 한 것이다.

: 예외는 언제나 있다.

### 1) 글쓰기 어려운 소재가 세상에 둘 있다.

(1) 내가 경험한 것

(2)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 내가 경험한 것은 감정만 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감정만 빼고 있다.

: 극복 - 물아일체

### 2) 스토리의 기본 : 원하는 것이 있고 이를 얻으려 노력한다.

- 모든 소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주인공에게 모자란 것/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얻기가 어렵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쓴다.“

: 원하는 것이 없다 - 시작을 안 한다.

: 어렵지 않다 - 전개를 안 한다.

: 애쓰지 않는다 - 끝이 안 난다.

### 3) 말하지 마라, 행동하라.

- 단지 사람이 살아가게 하라.

#### 4) 한 가지만 하라. (단편의 경우)

- 단순화하라, 집중하라, 캐릭터를 합쳐라. 이야기를 뛰어넘어라. 가치 있는 것을 놓치는 것 같겠지만 그게 더 자유롭다. (픽사의 스토리텔링 법칙 중에서)

: 한 생애 하나의 길밖에 갈 수 없다. 가지 않은 길은 잊어라.

#### 5) 믿어라

- 작가가 믿지 않는 것은 독자도 믿지 않는다.

: 비현실적인 이야기도 작가와 주인공에게는 진실이어야 한다.


#### 6) 변화하라

- 작가가 변하지 않는데 독자가 변하지 않는다.

: “만약에 처음 생각한 것과 그대로 결론을 내면 힘을 다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하나의 글을 썼다면 당신은 변해야 하고, 변했다면 결론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다.”

#### 7) 마음으로 쓰라. 기술은 글 쓰기의 일부다.

#### 8) 나는 글에 반영된다.

 결론 : 이 시간은 쓸데없지 않다.

## 강의 2 : 계약서 기본의 기본의 기본

### 1) 계약서를 쓰세요.

: 나와 세계를 위해

### 2) 저작권과 출판권

: 다르다

: 저작권은 내것 출판권은 출판사것. 출판권은 기한이 있다.

### 3) 돈을 받으세요

: 계약금 / 선인세 / 인세

: 기한을 보세요.

### 4) 계약은 끝날 수 있어야 합니다.

### 5) 2차 저작권

### 6) 나도 초보고 편집자도 초보다.

: 싸우지 말고 토론합시다. 편집자는 내 하나뿐인 동료입니다. 사랑합시다.

## 그림자 속 인형 (2014-01-12)

유진과 유진

영은 기계 속의 인형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새로 들어 온 인형은 ‘베니스 소공녀 인형’이라는 택이 달린 플라스틱 인형들이었다. 택 안쪽에는 Made in China가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만든 사람이 베니스라는 지명이 멋스럽다 생각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영은 그 택이 우습다고 생각했다. 머리카락보다는 머리털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푸석한 인조털에 싸구려 레이스로 치장된 인형은 어딘지 조잡했다. 영은 색칠이 뭉친 인형의 입술을 손톱으로 매만져 정리했다. 정리하던 중 인형의 까만 눈동자와 눈이 마주쳤다. 서클렌즈를 낀 것처럼 선명한 눈동자는 꽤나 섬뜩해 보였다. 영은 어릴 적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런 인형은 엄마에게 사달라 조를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중국에서 온 베니스 소공녀 인형은 어딜 보나 인형 뽑기 기계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영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아무리 조잡해보이더라도 소공녀 인형이기는 했다. 영은 평소에 싸구려 솜 인형이나 천 인형만 만지곤 했다. 아침, 트럭에서 내려진 박스를 연 영은 의아해 했다. 낯선 플라스틱 인형들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형 제공 업체에 전화 해 보려던 영은 그만 두었다. 전화 해봤자 받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업체는 꼬박꼬박 물건을 보냈지만 문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늘 물건을 일방적으로 받아야 했다.

정리를 마친 영은 벽에 기대 한숨을 돌렸다. 영이 기댄 벽은 영화관이 있는 건물이었다. 건물 안에는 음식점들과 팬시점 등이 있었다. 하나같이 깨끗한 가게들은 발을 디딜 때 마다 담배꽁초와 껌 딱지가 밟히는 바깥과 대조되었다. 새벽에는 인형 뽑기 기계를 정리하고 아침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나르는 영은 그 점을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두 곳은 너무나 달랐다. 영화관 건물이 빛이라면 뽑기 기계가 있는 곳은 그림자 같았다. 영은 자신 역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는 했다.

팝콘 기계에서 노란 팝콘이 쏟아져 나왔다. 쏟아져 나오다 마는 듯한 팝콘을 보고 누군가 영

에게 소리쳤다. 야, 지금 손님 많다고 했잖아. 빨리빨리 안 만들어? 고작 한살 더 많다고 텃세를 부리는 알바생 희였다. 영은 네에 하고 대답하고는 애꿎은 기계 버튼을 두들겼다. 그러나 그런다고 팝콘이 빨리 나올리는 없었다. 더군다나 제때 청소하지 못 한 기계의 내솔 바닥에는 팝콘들이 눌러 붙어 있었다. 그래서 팝콘 기계는 그날따라 자주 텅텅 거렸다. 영은 빠르게 옥수수를 넣고 소금을 넣고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나중에는 팝콘 기계가 손님들의 주문을 이슬이슬하게 따라갈 지경이었다. 팝콘이 더디게 나올수록 희는 영에게 짜증을 부렸다. 개봉 영화가 장난 아니더니, 사람 진짜 많네. 영은 옆에서 콜라를 따르는 알바생이 중얼거리는 걸 들을 새도 없었다.

너 따라 와. 손님이 줄어들어 한산해지자 희가 영을 불렀다. 영은 희를 따라 비상구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간 영은 멀뚱히 희가 담뱃불을 켜는 것을 쳐다봤다. 야, 내가 팝콘 빨리 만들라고 했잖아. 장난해? 나 옛 먹여? 이 여자는 내게 화풀이를 하는 거다. 영은 생각했다. 카운터에서 손님이 희에게 짜증내던 모습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도 영은 알고 있었다. 어릴 적 늦게까지 일하다 돌아 온 엄마도 희와 비슷했었다. 잔뜩 짜증이 나 좁혀진 미간. 향해야 할 대상을 모른 채 증오를 담은 눈. 희는 점점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영은 듣지 않았다. 영은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 사이로 희를 바라봤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다 보일 만큼 작은 키. 누런 전등 빛 아래서도 잘 보이는 염색으로 개털이 된 머릿결. 눈동자가 무섭도록 선명해 보이는 서클렌즈. 몽친 파운데이션 자국과 티트로 칠해진 입술. 영은 희의 첫 인상을 ‘양아치’라는 단어로 단정 지었다. 첫인상과 지금이 한결같은 희는 아침에 본 베니스 소공녀 인형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내 말, 듣고 있어? 영은 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병어리야? 대답도 못해? 애가 만날 어두침침해서……. 영은 순간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었다. 희는 갑작스러운 영의 행동에 움찔거렸다. 영이 고개를 들자 희는 더욱 작아 보였다. 영은 엄마를 떠올렸다. 항상 영에게 화풀이를 하던 엄마가 늘 영에게 하던 말이 있었다. 애답지 않게 어두운 년. 영의 얼굴에 그늘이 가득 끼 있어서 보기 싫다고 했다. 영은 매일 밤 팔다 남은 무로 얻어 맞았다. 그리고 키가 엄마보다 커지던 날, 집을 나왔다. 시……. 영이 무슨 말인가를 하려던 순간, 비상구의 문이 열리며 쿵, 요란한 소리가 났다. 인형 뽑기 담당 어디 있어. 알바 주임이 씩씩 거리며 서 있었다.

팬시점 트럭이랑 착각하면 어떡해. 지금 팬시점에서 난리난 거 몰라? 주임이 소리를 치며 기계에서 인형들을 꺼냈다. 영은 인형을 꺼내는 걸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주임이 영을 돌아볼 때마다 간간이 죄송합니다를 반복할 뿐이었다. 땡땡이를 목적으로 따라 나온 희는 주임 옆에서 거들었다. 네가 그렇지 뭐. 주임님, 애 월급 깎아 버려요. 주임은 종알대는 희 때문에 미간을 더 찌푸렸다. 인형을 다 꺼내 박스에 넣은 주임은 영에게 말했다. 너는 얼른 팬시점 가서 사과해. 주임이 박스를 들고 사라졌다. 영은 멍하니 기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베니스 소공녀 인형들이 빠진 기계는 텅 비어 허전했다. 그때 희가 영 앞에 불쑥 튀어나왔다. 앞으로는 일 톱바로 해. 알았지? 희의 말은 영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영은 희와 눈이 마주치자 입을 뿔뿔히 벌였다. 응? 여기로 와 보세요. 영을 따라 간 희는 더 이상 까불대지 못했다. 우악스러운 영의 손이 자신을 인형 뽑기 기계로 밀어 넣었기 때문이었다. 영은 비명을 지르는 희를 기계 안으로 꺾꺾 밟아 넣으며 중얼거렸다. 잘 가라. 잘 가라, 영원히. 희의 비명이 잦아들자 영은 발을 빼고 뚜껑을 덮었다. 희는 기계 안에 구겨졌다. 희의 얼굴이 투명한 기계 벽에 닿을락 말락했다. 영은 기계 안의 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인형이 들어 와 다행이다. 희는 비명을 질렀다. 영은 비명을 뒤로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기계 속의 희는 묻혀 버렸다. 그렇게 그곳은 영원히 그늘져 버렸다.

## 사랑합니다 고개님 (2014-06-22)

파란색스머프

손도 발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있어. 옆에 누워있던 엄마가 보이지 않아. 차가운 쇠 책상이라도 닿으면 좋을 텐데, 손을 휘둘러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밤. 엄마, 엄마. 나는 속으로 엄마를 불러. 손도 발도 엄마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나는 울고 있는 내 등을 쓸어주던 엄마를 떠올리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 그렇다고 무서움이 사라지는 건 아냐. 그래도 나는 덜 덜 떨리는 몸으로 이불을 꼭 끌어안으며 눈을 감아. 잠이 들어야지만 내일을 견딜 수 있어.

나는 이런 밤을 알고 있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밤. 밤공기에 차갑게 식은 핸드폰을 만지며 나는 무릎을 꼭 끌어안고 차 문에 몸을 기대. 정말 오긴 올까. 불안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사고의 뒤통리를, 찌그러진 범퍼를, 돈을 걱정하며 나에게 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어. 암보험, 자동차 보험, 보험이란 보험은 다 들었어. 내가 다치면 사람들이 올 거야. 괜찮으냐고 물어올 거야. 나는 알고 있어. 나에게 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이받은 가로수는 다행히 부러지지 않았어. 줄줄이 세워진 다른 가로수들처럼 꺾꽂하게 버티고 서있어. 가로수가 좀 굵기긴 했지만 물주머니가 달려 있으니 금세 나올 수 있을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살이 돋을 거야. 차가 조금 찌그러졌지만, 괜찮아. 수리하면 금방 새 차처럼 타고 다닐 수 있을 거야. 나는 차에 몸을 더 바짝 붙여. 말벌은 아직도 내 주월 뺨돌아. 잡아보려 하지만 자꾸 달아나 끈질기게 곁에 붙어있어. 주위에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한 마리, 두 마리, 계속 늘어나.

살짝 열린 차창 틈으로 벌이 들어왔어. 벌 따윈 아무것도 아니라고, 문득 찾아온 것처럼 문득 사라질 거라 생각했어. 말벌이 운전대를 꼭 쥐던 내 손을 쏘던 순간, 잠깐 사이에 가로수가 눈앞에 나타났던 순간, 잠시 밤이 찾아왔어. 누군가를 기다리던 밤.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고 내 옆자리를 더듬더듬 만져보던 밤.

에어백이 터진 덕에 그리 다치지지는 않았어. 벌에 쏘인 손이 점점 부어오르지만 아직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죽을 만큼 아프지도 않아. 나는 나중에 병원에 갈 돈이 있는지 생각하며 아프지 않은 손으로 상처를 감싸. 괜찮아, 난 다시 차에 탈 수 있어.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 나는 엄마를 보러 갈 거야.

한강대교를 건너는 커플이 보여. 손을 맞잡은 채 함께 걸어가고 있어.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난간에 붙어있는 하얀 램프에 불이 켜져. 자살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생명의 다리. 나도 저 다리를 건넌 적 있어. 세찬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려 자꾸 앞을 가리던 밤, 나는 저 다리를 혼자 걸었어. 나는 기억해. 내 발걸음에 맞춰 하나둘 켜지던 램프들, 거기에 적힌 많이 춥지? 밥은 먹었어? 같은 문장들. 날이 좀 춥네. 밤은 아직 못 먹었어. 나는 가만가만 대답하다, 불이 너무 밝아서 램프에 손을 가져다 댔어. 차가웠어. 그래도 괜찮았어. 손 밑에서 빛나는 램프가 내 몸을 환하게 감싸서, 나는 그걸로 충분했어.

나는 항상 꿈을 꿔. 내 옆에 엄마가 있었던 날들. 자장가를 불러줬던 날들. 나는 너를 사랑한 단다. 차가운 방 안, 전기매트를 깔고 누워 나를 안아주며 했던 말들. 나는 기억해. 따뜻했던 엄마의 품. 손을 뺐으면 엄마가 닿았던 날들. 꿈을 꾸고 나면 날이 밝아와.

밤이 가고 아침이 온다는 걸 알아. 밤새 굳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정장 와이셔츠를 목 끝까지 채운 뒤 화장을 해야 하는 시간이 온다는 걸 알아. 나는 발에 맞지 않는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서. 아침이 왔어. 정장을 입고 직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짧게 친 머리, 파마머리, 웨이브 머리, 긴 생머리. 그 수많은 사람 사이에 내가 있어. 나도 그들과 함께 회사로 가.

나는 기억해. 잠시 쉬고 있던 때, 칸막이가 쳐진 책상 옆에 앉은 동료의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리에 나도 모르게 고마워요, 대답한 날. 끈이어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나는 말했어.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기에선 말 대신 울음소리가 들렸어. 남잔지 여잔지 모를 사람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꺾꺾대며 울고 있었어. 나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실 기억하고 있어. 친엄마가 보내주던 돈이 끊겼던 날,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가던 엄마의 등. 차가운 방 안에서 전기매트의 온도를 36도로 맞추고 이불을 뒤집어쓴 채 잠들었던 날. 괜찮아, 그전의 날들, 나는 기억하고 있어. 엄마가 커다란 정신과를 차렸단 얘기를 들었어. 나는 그곳에 갈 거야.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괜찮아. 그곳에 가면 엄마가 웃으며 안녕하세요, 말할 거야.

이제 나는 엄마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잠을 자.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자장자장 잘도 잔다. 밤이 무서워 울고 있는 내 등을 쓸어주던 엄마의 자리에 내가 있어. 그 모든 순간들, 나는 기억해. 그래서 매일 아침 꿈결에 엄마의 팔 같은 기다란 쇠 책상 다리를 쓰다듬다가 일어서 회사에 갈 수 있어.

멀리서 사고점점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오고 있어. 어둠 속에서 차가 내뿜는 빛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마침내 나를 비춰. 한 여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찌그러진 범퍼를 살펴보고 괜찮으냐고 물어. 나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짚고 일어나 있는 힘껏 웃으며 괜찮아요, 말해.

## 고양이 하나 부탁드립니다. (2014-07-18)

슈뢰딩거

“저기, 펫클로닝이죠? 고양이 하나 좀 복제해 주실래요?”

2067년의 양평은 완전히 실버타운으로 변모했다. 젊은 시절 목돈을 마련해 놓은 노인들은 가장 자연에 가까운 곳에서 은퇴 후 70년의 여생을 보내는 것이다. 산 좋고, 공기 맑고, 북한강과 남한강 두 강줄기가 합쳐져 장관을 이루는 두물머리에 위치한 ‘두물머리 아파트’도 개중 하나였다.

203호로 들어가 보자. 손수 뜨개질한 커튼을 젖히고 베란다를 넘어 거실로 들어가면 할머니 한 분이 수화기를 들고 서 있다. 수화기라니, 요즘 보기 어려운 물건이다. 그녀도 요즘 노인들답게 구식 물건을 모으는 모양이다. 할머니는 발을 살짝 들어 청소 로봇을 피하면서 목소리를 높인다.

“얼마요? 60만 원이요. 네. 네네. 고양이 털이요? 수염이나? 네. 그럼 주소 불러주세요.”

할머니는 수화기 옆에 붙어 있는 전자 패드를 손끝으로 건드린다. 벽에는 황갈색 털에 초록색 눈이 반짝이는 고양이 한 마리의 사진이 걸려 있다. 하나가 아니다. 반대편 액자 속에서 그 고양이는 참치 캔에 얼굴을 파묻고 있고, 그 옆의 액자 속에선 소파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그런 식으로 거실은 고양이 사진으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패드를 두드리다 말고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친다.

“아이구, 감사합니다……. 우리 나비 좀 잘 부탁해요.”

그녀가 키우는 고양이 나비는 그저께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었다. 높은 데서 떨어트려도 균형을 잘 잡는 게 고양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겨우 이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건 믿기지 않

는 일이었다. 할머니는 죽은 나비를 끌어안고 실컷 눈물을 찍어내다가, 경비원을 불러 시체를 치웠다. 물론 그를 시켜 털 한 가닥을 뽑아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 후, 할머니는 나비를 되찾았다. 펫클로닝이라는 글씨가 박힌 점퍼를 입은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고양이 우리의 문을 열었다. 나비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와 할머니의 발목에 고개를 비빈다.

“만족하시죠?”

“네에, 어쩔 이리 똑같담. 이리 온 나비…….”

“또 이용해 주십시오.”

직원은 모자를 슬쩍 기울여 쓰고 자동 문 너머로 사라졌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가락으로 나비의 목올대를 긁어주었다. 나비는 그렇그렇 기분 좋게 목을 올렸다.

“애를 어떻게 키워서 이 모양이에요!”

203호 할머니가 목에 핏대를 올렸다. 그녀의 앞에는 고개를 푹 숙인 아이와 팔짱을 낀 엄마가 서 있다. 아이는 귀찮다는 양 등 뒤로 돌린 손가락을 꼬며 장난을 치는 중이다. 젊은 어머니가 눈썹을 팍 치켜올렸다.

“복제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아니 도대체……!”

할머니가 낮잠을 자는 사이 집을 빠져나간 고양이가 못된 꼬마의 눈에 걸려든 것이었다. 아이는 유전 실험이랍시고 나비에게 몹쓸 짓을 한 모양이었다. 엄마는 203호 할머니의 잔소리가 언제 끝날까, 싶은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순찰용 호버크래프트 몇 대가 저공비행을 하고 있었다.

“...세상이 아주 망하려고!”

할머니가 입을 다물고 숨을 쉰대었다. 엄마는 핸드백을 뒤져 알박한 카드 하나를 꺼냈다. 카드의 IC 칩이 할로겐 조명에 비춰져 반짝거렸다.

“팻클로닝 쓰시죠?”

“.....그래요.”

“60만원이면 되죠? 굵고 경비원 시켜서 408호로 보내주세요.”

카드를 건네주고 사라지는 엄마 뒤로 할머니가 주먹을 꽉 쥐고 울러댔다. 아니 엄마가 저 모양이니 애도 저 따위지. 아주 말세야 말세! 408호 할머니는 정말 불쌍하다니까, 저만 며느리를 두니까 고혈압이 도지지! 한참을 대로변에서 혈떡이던 할머니가 카드를 꼭 쥐고 아파트를 돌아 사라졌다.

“두 번 이상 이용하시면 우수 고객 자격이 되십니다. 가입하실래요?”

“나비아!”

나비는 우리를 헤치고 뛰어나와 할머니 품에 안겼다. 꽃무늬 원피스에 고개를 마구 비벼대는 나비 옆에 선 직원은 서류판을 들고 혜택을 한참 읊어댄다.

“일단 이메일이 가구요. 멸종 동물 복원도 20% 할인된 가격에 가능합니다. 매머드가 800만원이라니까요. 배송료도 무릅니다.”

“가입 안 해요.”

그는 자동문 너머로 나서면서 중얼거렸다.

“다음번 복제도 5% 할인인데요.”

곧 203호 할머니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나비가 뺑소니 호버크래프트에 치인 것이다. 시내에서는 30cm 이하의 초저공비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명백히 불법이었다. 할머니는 쭈그려 울면서 식은 나비의 몸에서 털 몇 가닥을 뽑아냈다.

“할머니, 이번에는 안 돼요.”

“왜, 왜요. 나비가…….”

“나비고 자시고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인간 복제는 두 번, 동물 복제는 세 번까지. 그 법령 나온 게 언젠데 이러세요.”

“하지만 나비가…….”

“아니 진짜 안 된다니까요.”

“과학자 양반, 정말 부탁이에요. 어떻게 좀…….”

“안 돼요. 법이라니까.”

“돈은 몇 배로 낼게요, 제발…….”

“이 할머니가 진짜!”

수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3호 할머니는 상심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전화를 끊은 그녀가 벽에 걸린 사진을 더듬고 있던 중이었다. 벨이 울렸다.

“할머니?”

누가 듣기라도 한다는 듯 소곤거리는 목소리였다.

“할머니 제가 진짜 안타까워서 그러는데요. 이번만 딱 비밀로 복제해드려요.”

“어머나!”

“싹!”

남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600만 원만 내세요.”

203호 할머니는 나비가 도착할 이 주일 후를 손꼽아 기다렸다. 주인 잃은 우리를 청소하고, 나비를 먹이려 비싼 캔도 잔뜩 주문해 두었다. 마침내 이 주 짜가 되는 날이었다. 초인종이 울리기 무섭게 할머니가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너무 급하게 몸을 던져 미끄러질 뻔 할 정도였다.

“펫클로닝입니다.”

전번과는 다른 직원이었다. 그가 허리를 굽혀 우리를 열자, 나비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다. 또릿한 눈동자에 강충한 귀, 빠들빠들한 수염 모두가 나비였다. 할머니는 너무 기뻐 두 팔을 크게 벌렸다.

“아이구, 아이구 내 새끼. 우리 귀여운 나비.”

직원은 고개만 까닥하고 우리를 든 채 나가 버렸다. 나비는 할머니의 팔에 고개를 몇 번 비비고 냄새를 맡는다. 203호 할머니는 일어나 찬장으로 간다. 열흘 전에 도착한 고양이 캔이 쌓여 있다.

“우리 나비 많이 배고프지? 응? 내가 나비 주려고 맛있는 걸 가져왔지.”

그녀가 캔을 도려내 땅바닥에 내려놓자 나비가 게걸스레 달려들어 냄새를 맡는다. 그러다 몇 번 깔짝대다 앞발로 캔을 밀어냈다. 제법 인상까지 찡그린다.

“애가 왜 이러지.”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혹시 내용물이 상했는가 싶어 캔을 들어올려 살펴보던 할머니가 부엌 쓰레기통을 향해서 고개를 돌린 순간이었다.

“할머니.”

열두어 살쯤 된 남자에 목소리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캔을 바닥으로 떨어트렸다. 뒤돌아본 곳에는 나비가 앉아 있을 뿐이었다.

“나비아……?”

“할머니, 내가 진짜 말 안 할려 그랬는데 이거 진짜 맛 없어요.”

“세…… 세상에.”

“담번에 살 땐 소고기 말고 닭고기로……, 어?”

할머니의 몸뚱이가 나무토막마냥 마루에 푹 쓰러진다. 나비는 어라, 어라라 하는 소리만 내면서 멀거니 보고 있을 뿐이었다. 눈을 홑뜨 할머니가 부르르 입에 거품을 물었다. 나비는 머리를 굽적였다.

“할머니?”

나비가 다가가 할머니의 얼굴을 앞발로 쿡 찌른다. 푹 꺼진 뺨에서는 이미 생명의 기운이 떠났다. 백 사십살짜리 심장에게는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할머니 일어나요.”

나비는 몇 번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그러다 포기했는지, 꼬리로 마룻바닥을 탁 내리쳤다.

“에이.”

그는 거실을 휘 둘러보다 쓰러진 시체 옆에 놓인 험타과, 그 위의 수화기를 번갈아 본다. 나비는 할머니의 몸뚱이를 타고 올라가서는 몸을 활처럼 둥글린다. 동그랗게 몸을 만 그가 탁자

로 뛰어오르지만, 너무 높아 놓치고 만다. 몇 번의 실패 끝에 탁자 위에 올라앉은 나비가 헐떡이며 수화기를 들었다.

031-1984-1984

“여보세요?”

“네.”

“뻗 클로닝이죠? 할머니 하나 좀 복제해 주실래요?”

## 햇바 (2014-08-17)

P군

아버지는 오늘도 자루를 들고 오셨다. 아버지 웬 자루예요? 따위의 어린 질문은 꼴깍 삼켜냈다. 이미 수십 번도 넘게 본 자루였다. 자루 속의 내용물 또한 질리도록 보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분홍빛이 도는, 약간의 핏물을 머금고 있는. 아버지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나를 지나쳐 곧장 주방으로 가셨다. 늘 그렇듯 아버지는 고무장갑을 끼셨다. 물이 빠져 본래의 색을 잃은 연분홍색 고무장갑은 아버지의 유일한 작업복이었다. 아버지는 자루를 거침없이 싱크대에 뒤집어 부으셨고, 또 거침없이 그들의 살을 발라내었다. 중간 중간 연약한 뼈 탓에 잘 발라지지 않는 그들의 머리는 망설임 없이 믹서기에 던져 넣으셨다. 그들의 머리. 머리였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농장에 가서 그들의 머리를 받아 오셨다.

“이놈들 머리들을 대체 어디에 쓰십니까? 아니, 저희야 쓰레기 처리도 되고 좋긴 합니다만…….”

처음 농장 아저씨의 말에 나 또한 의문을 가지고 아버지를 쳐다보았으나 아버지는 넉살 좋은 웃음을 지어보이며 이놈들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인데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아버지의 대답에 농장 아저씨도, 나도 영문을 몰라 했다. 하지만 정말 아버지의 말대로, 그들의 머리는 정말 누군가의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농장에서 직접 기른 국내산 100% 닭고기 햇바입니다. 믿고 드셔보십시오. 국내산이라 맛이 기똥칩니다!”

농장의 이름은 양계장이었고 그들의 머리는 바로 닭 머리였다. 물론 국내산 닭고기이긴 했다. 그것도 100%. 아버지의 말이 영 틀린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닭 머리를 해체시키기도 하고 귀찮을 때엔 아예 통째로 갈아버리기도 했다. 그들의 향기로운 냄새에 매료되어 온 몇몇 벌레들은 욕망을 못 참고 믹서기에 뛰어들기도 했다. 아버지는 그들을 흘깃 바라 보다 말

뿐 사랑에 몸 바친 벌레들의 위에 후추며 갖은 양념들을 부으셨다. 군대 조리병 출신이라고 심심치 않게 말하던 아버지의 경력은 이렇듯 부엌 내에서 화려하게 발휘되었다.

“아저씨! 대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와요? 너무 맛있다. 저 만날 사 먹으러 오는 거 아시죠?”

내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교복 셔츠에 닭기름을 푹푹 흘려가면서 먹는 그녀의 모습은 괴기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우적우적. 아저씨, 소스 좀 더 뿌려도 돼죠? 짜익. 아, 맛있다! 짹짹. 아버지의 고무장갑에서 해체된 그들의 머리는 그녀의 입속에서 다시 한 번 다져졌다. 연신 맛있다고 탄성을 내지르는 그녀의 벌려진 입에선 벌레들이며 눈 감은 닭의 분홍빛 머리가 보였다. 조각난 닭의 눈, 조각난 닭의 껍질, 조각난…… 나는 울렁이는 속을 달래며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웃으며 그녀에게 돈을 거슬러 주고 계셨다. 꿀꺽. 울렁임을 삼켜 내자 진짜 토를 삼킨 것 마냥 구역질이 몰려왔다. 입이 바짝바짝 말라왔다. 어느새 그녀의 입안보다 아버지가 더 무섭게 느껴졌다. 나는 결국 아버지의 트럭 뒤에서 속을 게워낼 수밖에 없었다. 웁. 으윽. 우웁. 아버지의 트럭 뒤엔 엉성한 글씨로 ‘영양만점 국내산 수제 핫바!’라고 쓰여 있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내가 쓴 글씨임이 분명했다. 턱. 숨이 막혔다. 영화 속에서 보던 납치 장면 중 하나를 몸소 실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형겹으로 입을 막고 있는 장면. 온 몸이 뒤틀리는 느낌이었다. 커다란 거인이 나를 한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느낌. 웁!

“아버지 저 하나만 먹어 봐도 돼요?”

언젠가 장사 준비로 분주했던 아버지에게 핫바를 들어 보이며 물었던 적이 있었다. 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까? 하는 순수한 호기심에서 였다. 아버지는 예의 시큰둥한 표정으로,

“넌 이런 거 먹지마라.”

아버지는 내 손에서 핫바를 빼앗아 다시 진열대에 가지런히 올려 두셨다. 거칠게 빼앗은 것

과 달리 여성스럽게 핫바를 올려두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다. 마치 다른 사람같이. 그리고 그 핫바는 또 다시 다른 누군가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그럼 옆집 아저씨 호떡은 먹어도 돼요?”

“나 같은 새끼가 또 어디 있을 줄 알고 그런 걸 먹어.”

그제야 나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슬쩍 바라본 아버지의 표정은 어딘가 마음 한 구석을 시리게 만드는 표정이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나는 어쩐지 평소처럼 환하게 웃을 수가 없었다. 거세게 욕신거리는 마음에,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바보처럼 아버지만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핫바를 팔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결국 아프다는 핑계로 아버지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싱크대 안의 자루 속에는 아무 것도 없었지만 아직까지 머금고 있는 비릿한 냄새에 반한 밧정 난 파리들이 들끓었다. 나는 자루를 두 손으로 꼭꼭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아버지가 다시 꺼낼 수 없도록 쓰레기통 밑바닥까지 꼭 눌러 넣었다. 쓰레기통 맨 밑엔 ‘미납’이라는 푸른 명을 매단 종이봉투들이 어지럽게 구겨져 있었다. 왜인지, 푸른 명을 매단 연약한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다는 무서운 충동이 들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음 날에도 자루를 들고 오셨다.

“야, 오랜만이다! 어째 넌 방학인데 연락 하나 없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슈퍼에 소스를 사러가는 길이었다. 방학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였다. 아버지가 장사를 하고 있는 중에 밖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종료 시간은 밤 10시였고 그 시간은 아버지의 장사종료 시간과 같았으니까 말이다.

“만난 기념으로 내가 핫바 사줄게. 저기 트럭 아저씨 핫바 진짜 맛있대! 가자!”

쿵. 누군가가 머리를 커다란 망치로 내려친 기분이었다. 이 근방의 핫바를 파는 곳은 하나였고 친구가 가리키고 있는 트럭 또한 하나였다. 나는 어느 새 나를 등지고 걸어가고 있는 친구

를 바라보았다. 나는 친구를 쫓아가야 할지, 슈퍼를 가야할지도 저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아니, 친구와 함께 가 매상을 올려야 할지, 친구를 뜯어말려야 할지가 더 문제였다. 눈앞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닭 머리가 떠다녔다. 동시에 아버지의 얼굴도 떠다녔다. 너무 어지러워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하늘이 뱅글뱅글 돌았다. 노을을 등진 하늘은 잘 구워진 아버지의 핫바 색을 닮아 있었다.

## 우천취소 (2014-10-05)

라망

비가 옵니다, 오늘도 또 취소되려나 본데요, 김이 말했다. 해가 누엣누엣 서쪽 고개로 넘어가는 중이었다. 우산을 챙겨 오지 않았다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는 지붕 아래에 있었고, 정도 마찬가지로였으니까. 다음엔 대구인가, 두 시간은 죽히 걸리겠구만, 정이 대답했다. 이따가 또 그칠지도 모를 일이죠, 하늘이야 무심하다지만 일주일 내내 뿌려 대겠습니까, 김이 응수했다.

두 사람은 정확히 말해서, 보문산을 등진 대전의 야구장 안, 응원석 뒤쪽의 탁자석에 앉아 있었다. 경기 시작까지 한 시간 반가량이 남아 야구장 안은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게다가 아까는 부슬부슬 오던 빗방울이 제법 굵어진 탓에 나가는 사람의 수가 들어오는 사람의 수를 추월하는 참이었다. 아무래도 그칠 비가 아니야, 정이 말했다. 저 봐, 방수포 들고 나오잖아, 정은 초록색의 널찍한 천을 끌고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켰다. 흙으로 덮인 부분들이 모조리 천에 덮여 가려졌다. 이제 그라운드 위는 온통 녹색, 비를 맞으면서도 몸을 푸는 선수들만이 몇몇 있을 뿐이었다.

우리도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얼마 안 가 우취1가 떨어질 겁니다, 김은 정을 재촉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정도 비라면 상식적으로 누구든 야구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발길을 돌릴 게 뻔했으니까— 혹은 술집으로 향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정은 빗속에서 홀로 방망이를 휘두르는 선수 하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더그아웃에서 들어오라는 손짓이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봐 김, 자리 좀 옮길까, 정이 물었다. 이 날씨에 자리 타령입니까, 얼른 나가는 게 백 번 나올 건데요. 잔말 말고, 먼저 가 있을 테니 맥주 두 캔만 사 갖고 따라와, 정은 의자에서 내려와 뒷짐을 진 채 1루 내야석 쪽으로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 위를 가려 주던 지붕이 사라지고 장대비가 정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거 참, 김은 투덜거리면서도 정의 뒤를 쫓았다. 이제 막 문을 닫을 채비를 하던 편의점에서 맥주 두 캔을 사 들고.

정이 도착한 곳은 더그아웃 바로 위에 마련된 지정석이었다. 지붕이 있어 비를 맞을 필요는 없었다. 정은 위에서 떨어져 고인 빗물을 대충 훑쳐 내고 자리에 앉았다. 걸어오며 둘러본 바로는, 더 이상 야구장에 관중은 남아 있지 않았다. 둘뿐이었다, 김과 정. 김이 도착하기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편의점도 문 닫았습니다, 김은 구시렁대며 맥주를 건네주었다. 잔말 말고, 저 선수 누군지 알아, 정은 캔 뚜껑을 따고 한 모금 들이켰다. 2군에서 올라왔나 본데요, 낯익은 얼굴은 아닌데, 김이 대답했다. 정말 모르겠어. 글썄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전광판이 그제야 우천 취소를 알렸다. 알리나 마나 이 날씨에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야구장 안에 발을 들일 사람이 있지는 않을 테지만,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두 사람을 위해서였는지, 큼지막한 스크린을 통해 ‘오늘 경기는 우천으로 인해 취소되었다’는 문구가 비춰졌다.

저 선수 하나 보겠다고 남아 있는 겁니까, 김이 투명스레 물었다. 정은 실소를 터뜨렸다. 저번에 2군 구장 간 적 있잖아, 이글스 투언가 뭐가 해서, 그때 인상 깊게 본 놈이 바로 저 선수야, 그때도 날씨 때문에 경기 취소됐었잖아. 정은 아주 오래 전 일을 기억하는 게 꽤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너털웃음을 지었다. 아, 그 녀석, 생각나네요, 아마 감독한테 혼났겠조 그날, 김도 함께 웃었다. 그래, 어쨌든 1군에 왔잖아, 그리고 또 저러고 있고, 정은 그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보통 때라면 당연히 경기장에 나가 몸을 풀고 타격 훈련이든 뭐든 할 시간이었지만, 비가 온다면 모두 쉬러 들어가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었다. 그 외에도 코치들의 말마저 뒤로 한 채 계속해서 방망이를 휘둘러 대는 모습이, 정의 시선을 빼앗은 건 어찌 보면 그 또한 당연했다.

빗방울이 조금 가늘어졌다. 정은 맥주 두 캔을 깡그리 비워 내고 몸을 일으켰다. 그는 여전히 그라운드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어이, 정이 외쳤다. 그가 돌아보았다. 그는 정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을 유독 주의 깊게 지켜보던, 2군 경기장에서의 정을. 파이팅, 정이 한번 더 외쳤다. 그는 헬멧을 벗어 짧게 목례하고 다시 방망이를 잡았다.

대구에서도 볼 수 있을 거야, 저 녀석, 정은 야구장을 빠져나가며 중얼거렸다. 김은 동의의 의미로 침묵했다.

떡구름이 슬슬 개이고 있었다.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듯싶었다.

각주 1 : 우천 취소의 줄임말. 야구팬들 사이에 은어로 쓰인다.

## 열쇠 (2014-10-05)

난니

내가 처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보였던 그녀는 마치 한 마리 호랑이와 같았다. 그녀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간섭을 했고, 혼계를 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무것도 없이 남편을 포함한 칠남매를 키워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녀는 남편에게 있어 신화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신화는 열쇠 하나에 갇혀버렸다.

“흔히 말하는 치매입니다.”

반쯤 내려온 안경을 검지로 밀어 올리던 의사는 너무도 담담하게 그렇게 말했다. 나도,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단 한 사람, 그녀만은 너무도 해맑게 헤헤-거리며 병원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친구들의 말을 빌리자면 제일 힘들다는 시집살이라는 치매 걸린 시부모 병수발, 그녀에게는 미안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그녀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병원에서부터 집까지 그녀를 부축하며 걸어오면서도 나는 복잡한 심경에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그녀의 방문 문고리를 반대로 다는 것이었다. 그런 뒤 창문까지 못으로 단단히 박아 절대 방안에서는 나갈 수 없게 만든 뒤 그녀를 방안으로 모셔다 드렸다.

“이 방 열쇠는 당신한테 줄 테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어머니께 드리지도 말고.”

남편은 나에게 작은 열쇠 하나를 쥐어주며 단단히 일렀다. 나는 그 열쇠를 받아 내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고는 떨쩍이 서서 그녀의 방을 바라보았다. 참 총명하던 사람이었는데 어찌다가 저리 되었을까. 열린 방문 틈으로 보이는 그녀는 뽕뽕이- 하며 장난감 자동차를 이리저리 흔들며 방안을 마구 돌아다니고 있었다.

남편이 회사로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나는 그녀와 함께 있어야 했다. 굳게 닫혀버린 방문 너머로 그녀는 소리를 질러대며 문을 두드렸다. 그러다가도 그녀는 먼저 지쳐 잠잠해졌다. 그녀가 잠잠해진 틈을 타 나는 그제야 집안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식사준비를 하고. 그런 뒤에야 나는 식사를 간단히 챙겨 그녀의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밥이 반가운 건지 아니면 오랜만에 열린 문이 반가운 건지 모를 만큼 그녀는 기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앉혀두고 밥 한 숟갈을 떠서 입 안으로 넣어 줄때면 그녀는 언제나 셋에 한번은 내 얼굴을 향해 도로 빨곤 하였다. 오늘은 특히나 더 그랬었다. 빨은 걸 겨우 닦아내고 나면 언제 숟가락을 가져가 다시 입안에 넣고는 빨어버리고, 몇 번을 반복한 뒤엔 방과 나는 망신창이가 되어 공중에 떠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결정적으로 그녀는 나에게 뜨거운 국을 빨어버렸다.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있는 사이를 틈타 그녀는 재빨리 방을 나가버렸다.

“어머니! 어디가세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쫓아가보지만 그녀는 맨발로 집을 이미 뛰쳐나간 뒤였다. 나도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 보지만 그녀는 이미 멀리 도망치고 있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무거워져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듯이 아파올 때 즈음 그녀는 멈춰 섰다.

“어머니…….”

나는 갑자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차올랐다. 아마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밥을 먹든 말든 그냥 방에다가 밀어 넣고 나오는 건데, 그럼 이 고생은 안 해도 될 텐데……. 나는 아무 소리도 없이 주저앉아 고개를 무릎으로 파묻었다.

“이년아, 울긴 왜 울고 주저앉긴 왜 주저앉아. 일어나. 그리고 포기하지 마.”

그녀는 나의 등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정신이 돌아왔나 싶어 바라봤지만 다시 날아가는 나비를 보며 쫓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내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주기 위해 나를 이 곳으로 데리고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나를 데리고 온 곳은 넓은 꽃

이 펼쳐진 들판이었다. 그리고 꽃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는 마치 소녀였고 여자였다. 내가 그녀에 대해 잊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그녀 역시 여자였고, 누군가의 연인이었다는 점이였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여자로서의 삶을 끝내버린 그녀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다. 그녀의 사람으로서의 삶마저 끝내버릴 순 없었다. 이빨 빠진 호랑이 처럼 우리에게 갇혀 버린 그녀를 이제는 탈출시켜 줄 때가 온 것이였다. 나는 앞치마에 손을 넣어 작은 열쇠를 짊 쥐었다. 그리고 넓게 펼쳐진 들판 너머로, 멀리, 찾을 수 없게 던져버렸다.

## 웃는 동안 (2014-12-02)

서늘해

여자는 표정이 없이 태어났을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 울지 않아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겁먹게 만들었을까. 품에 안아 흔들고 얼굴을 일그러트리며 웃기려고 해도 좀체 웃지 않아서 부모님이 애를 먹게 했을까. 사람들은 여자의 화난 듯한 표정 때문에 그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까. 여자는 표정이 없었다. 얼굴에 근육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모종의 사고로 인해 신경이 끊어져서 표정을 짓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었다.

여자의 얼굴엔 주름 하나 없었다. 다리미로 다린 옷처럼 뻥뻥했다. 잘못 손대면 종이 찢어지듯이 흠집이 갈 것 같았다. 턱선은 날렵하게 살아있고 콧대는 서양인처럼 높았다. 여자가 어린 것은 아니었다. 중학생 아이 셋이 있어도 의심이 없을 나이였다. 혹시 정보가 잘못 되었나 싶어 여자를 소개해준 선배에게 몇 번이나 문자를 보내 확인했다. 여자는, 그러니까, 노처녀였다.

나는 여자의 얼굴을 흘깃흘깃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피부가 주름 하나 없이 그렇게 고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여자는 입을 움직이지 않고, 커피를 흘려 넣듯이 마셨다. 필사적으로 얼굴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다. 여자는 작게 입을 움직여가며 말했다.

“웃지 않았거든요. 울지도 않았고요.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실례지만, 웃겨 드려도 될까요?”

여자는 대답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나는 고개만 까딱거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여자가 지금 이 시간이 지루한지 즐거운지 아니면 화가 나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말수도 적었다. 다행히 하품을 하진 않았다. 아니, 하품을 참고 있는 걸지도 몰랐다. 가끔 얼굴에 힘을 주는 것이 보인다.

무표정한 지금도 여자는 아름답고 눈빛이 매혹적이다. 하지만 웃음을 지어보이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입술과 입술 사이로 그 하얀 이가 살짝 드러나고 광대뼈가 밀려 올라가면, 그리고 손으로 살짝 입을 가리면서 수줍게 얼굴을 붉히면……. 문득 이 여자가 웃는 것이 보고 싶어

졌다. 세월을 뛰어넘는 마법이 깨져 여자의 얼굴이 갑자기 늙어버리더라도. 웃는 모습이 어떨지 상상이 안 갔다. 영성한 윤곽만 블라인드 너머로 가려져 있었다.

여자는 두 번째 약속을 받아주었다. 무표정 속에서 일어난 승낙이라, 내가 너무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개그맨으로써 여자를 웃겨야 한다는 의무심이 생겨났다. 어떻게 하면 여자를 웃게 만들 수 있을까. 웃지 않고는 참을 수 없게 만들 수 있을까. 저 철용성 같은 얼굴을 일그러지게 만들 전략을 생각하며, 여자와 다시 만난 건 일주일 후였다. 나는 여자와 함께 있는 내내 콧수염 달린 코쟁이 안경을 쓰고 다녔다. 여자는 내가 왜 이것을 쓰고 있는지 묻지조차 않았다. 나를 보는 주변의 시선들이 수군거리며 눈웃음을 지었다. 이 정도로 여자가 웃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걸 어디까지나 선전포고였다.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다가 잠시 여자에게 멈춰달라고 한 후, 여자의 앞에 서서 말장난 몇 개를 건넸다. 산신령이 기뻐하며 소리치는 말은? 신난다! 같은, 실소라도 나오는 유머. 그리고 몸을 움직였다. 파트너가 있어야 완성되는 개그였지만 내가 나를 치고 내가 나를 걸어 넘어트리고 내가 나를 힐난하며 내가 나의 웃을 벗겼다.

여자는 벤치에 앉아서 나의 원맨쇼를 보고 있었다. 나는 쇼를 벌이다가 어느 순간 심장이 가쁘게 뛰기 시작했는데, 실패한 개그를 보는 면접관들의 눈초리와 여자의 눈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날카롭고 표정이 없다. 다리까지 꼬고 '나를 웃겨보라'는 시선. 어느새 나는 여자를 웃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남을 잘 웃길 수 있는 개그맨인지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꼴이 되었다. 나는 원맨쇼를 멈추었다. 사람이 오고 있었다.

“재밌었어요.”

표정 없이 넌지시 던지는 말이었다. 진심일까. 여자는 속으로라도 웃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단지 고장 난 모니터처럼 그걸 제대로 출력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여자가 내게 질렸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나를 붙잡았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며 웃고 싶다고, 가냘프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다음 약속을 잡았다. 여자는 흔쾌히 승낙했다. 돌아가는 길에 여자를 소개해주었던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와하하 웃어버렸다.

“네가 재미없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 이진 농담이야. 그러니까, 그 애, 어렸을 때부터 얼굴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데. 감정을 죽일 순 없으니까 감정표현을 죽인 거지.”

“그게, 왜, 있잖아. 웃으면 주름 생기잖아. 특히 팔자주름. 나도 옛날에 존나 웃어대서 주름이 코에서부터 턱까지 주욱, 하고 그어졌었지. 너무 선명해가지고 스트레스 존나 받았어. 아무도 내가 학생이라는 걸 안 믿었다니까. 존나, 팔자주름은 늙음의 상징이니까!”

“어쩌면 너랑 개그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참에 내가 도와줄까?”

나는 그래달라고 말했다.

나와 선배의 계획은 별 것 아니었다. 저번처럼 여자를 한적한 공원으로 데려간 다음 우리들끼리 개그를 주고받으면 되는 거였다. 다른 개그맨도 몇이 더 있었다. 모두 유명하진 않았지만 텔레비전에서 한 번쯤은 봤을 얼굴들이었다. 선배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철용성 같은 여자의 얼굴을 무너트리겠다면서 투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데이트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람을 웃게 하기 위한 자선사업인지 알 수 없게 돼버렸다.

여자는 벤치에 앉아서 어색하게 서있는 우리들에게 건조한 시선을 던졌다. 개그맨들은 뜨악했다. 살면서 그런 얼굴은 처음 보는지. 웃기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웃기지 못한다면 그건 순전히 개그맨의 탓이라고 배워온 우리들에게, 여자의 얼굴은 개그맨 지망생 맺은 꿈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함으로 다가왔다.

우리들은 시작했다. 가벼운 말장난을 주고받다가 쇼로 넘어갔다. 관객들 앞에, 카메라들 앞에 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때리고 흉측한 표정을 지으며 관능적인 자세를 하고 물을 뿜었다. 용을 흉내 내고 국회의원을 흉내 내고 리어카를 박은 벤츠 주인에게 리어카 주인이 이게 얼마짜리 리어카인지 아느냐고 따지는 것을 연기했다. 어느덧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사람들은 녹화 중인 거냐고 서로 물어가며 휴대폰을 꺼내들어 우리에게 일제히 겨눴다.

개그맨들의 쇼가 끝나고, 카메라들 사이에서 여자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그날 술잔을 기울였다. 우리가 잘못 본 것일까. 너무 염원한 나머지 환영을 만들어낸 것일까. 여자의 얼굴에 금이 가, 아주 약간, 입 꼬리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았다. 우리들 사이에선 여자를 웃기면 유명한 개그맨이 될 수 있다는 신화가 생겨났지만 내가 곧바로 잠재워버렸다. 이진 나의 데이트였다.

그때 여자의 얇은 웃음은 신기루였는지 여자는 그 후로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여자를 웃겨보려고 평소에도 개그를 던지고, 틈이 나면 여자를 공원으로 데려가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보여주었다. 나는 점점 지쳤다. 이 철옹성을 무너트릴 수가 없었다. 금이 갔어도 먼지 하나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작은 틈일 뿐이었다. 그 정도로는 성을 무너트릴 수 없었다. 계속 금이 가게 만들면 되겠지만 그 금 하나를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균열 몇 개 간다고 무너질 그런 허술한 성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여자에게 보여줄 마지막 개그를 준비했다. 이것이 마지막 공격이다. 여자가 웃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 여자가 까르르거리는 모습을. 여자가 웃고 싶다고 한 말을 떠올렸다.

“자아, 시작합니다.”

나는 하루살이가 날아드는 가로등 밑에서 여자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보였다. 여자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말장난 없이 바로 몸을 움직였다. 손짓부터 시작해 고갯짓, 발짓을 하다가 온 몸을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렸다. 그 후부터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른다. 눈을 여자에게 고정시키고 온갖 개그를 선보였다. 동물이 되고 곤충이 되고 세단을 타는 부자가 되고 육쟁이 할머니가 되고 통풍 걸린 할아버지가 되고 치매에 걸리고 유치원생이 되고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사나이의 의리를 외치며 식혜를 뽑았다. 긴 시간이었다. 몸을 움직이며 시간을 몸 위에다가 굴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움직임은 작아져갔다. 사람들이 웃지 않을 때 개그맨이 겪게 되는 공황. 나는 움직이지만 관객들은 멈춰 있는 상황. 여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고 있었다. 처음과 같은 자세로, 같은 표정으로, 같은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바닥에 쓰러졌다. 쇼크를 받은 것처럼 몸을 벌렁벌렁 했다. 하루살이들이 빛을 좇아 날아다니다가, 한 놈이 가로등에 머리를 박고 떨어져 헤 하고 벌린 내 입으로 들어갔다. 나는 벌떡 일어나면서 침을 튕뿔 뱉었다. 그리고 근처의 정수기에서 입을 행켰다. 아, 기분 더러워. 나는 여자에게 얼굴을 돌렸다. 여자에게 다가갔다. 여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꼭 다문 입 사이로 쿵쿵 웃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여자의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여자의 몸이 가늘게 떨린다. 여자는 온 힘을 다해 참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여자의 손을 잡고 아래로 내렸다. 손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떨어졌다.

웃는 것은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 어떤 기계로도 짤 수 없는 미세하고도 촘촘한 조직들

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마법이 풀렸다. 누구의 저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굳어 있던 얼굴이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움찔거렸다. 철옹성에 금이 간다. 조각조각. 다 맞춰진 직소 퍼즐이 다시 산산이 흩어지듯.

마침내 여자의 얼굴이 부서져버렸다. 나는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는 파편들을 보는 중이다.

## 장초 (2014-01-21)

품달

“학생 정말 미안한데.”

얼굴이 불쾌한 택시기사가 보조석 뒷자리에 앉은 하영에게 담배를 한 대 피워도 괜찮겠느냐 물어왔다. 손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던 하영은 그 쪽으로 슬쩍 눈을 비추는가 싶더니, 그러시던가 하고는 다시 손거울로 시선을 거두었다. 백미러 너머의 하영을 건너다보던 택시기사는 곧 대시보드의 수납함으로 손을 뻗어 꼭 손거울만한 담뱃갑을 꺼낸다. 이윽고 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 라이터를 찾는 듯 했다. 그러나 꺾 안에도, 대시보드 속에도 혹은 택시기사의 바지주머니나 택시 밑바닥에서도 라이터를 찾을 순 없었다. 택시기사가 한 손으로 핸들을 잡진 채로 이곳저곳을 뒤지는 탓에, 하영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야 만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주머니에서 제 라이터를 꺼내 딸깍였다. 딸깍. 딸깍. 라이터는 그런 소리를 내며 켜졌다. 꺼졌다. 했다. 보조석 시트에 얼굴을 박다시피 있던 택시기사는 그 소리에 몸을 쑥 일으킨다. 그는 입에 물던 담배를 잠시 손에 쥐어 놓고는 뒤쪽에 앉은 하영에게 불도 줌. 하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하영은 택시기사의 몸에서 술 냄새가 훅 끼쳐오는 것을 느꼈다. 하영의 등이 어느새 뒷좌석 시트에게로까지 후퇴하고 만다. 찰칵. 라이터는 또 그런 소리를 내며 불길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렇게 택시기사의 입에 물린 담배에 불을 가져다 대었다. 택시기사가 곧 숨을 들이마시자 담배에 불이 붙었다. 타 들어가는 담배는 흐느끼는 듯싶은 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자동차 엔진소리에 묻혀 이들에게 들릴 리가 없다. 갑 속에 갇혀있던 담배는 이제 딱히연 그을음을 피워 올리기 시작했을 뿐이고, 그 그을음은 차차 천장에 쌓여갈 따름이다. 택시기사가 첫 숨을 도로 내설 때 이윽고, 자동차가 잠시 휘청거린다. 택시기사의 윗 몸뚱어리는 바로 제 자리를 찾아간다. 그러나 하영의 자리에는 택시기사가 내쉬고 간 담배연기가 남아 그녀의 교복 속에, 그녀의 머리카락과 분이 덮인 피부 아래에, 스며들어갔다. 하영은 스윽, 숨을 들이마셨다. 어릿한 담배연기가 하영의 흉곽에 담겼다가, 이윽고 내쉬어졌다. 하영은 저도 모르게 고인 침을 혀로 찬찬히 굴리다 삼켰다. 그리고 거푸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어느새 창문을 열어놓았는지 택시안의 담배연기는 어느새 잦아들었다. 그는 열어

놓은 창문에 연신 콩초를 떨어내고 있었다. 여전히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진 채. 하영은 그에게서 눈을 돌린다. 그리고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다.

택시가 들어선 길목은 무어라 붙여진 이름이 없는 너절한 먹자골목이었다. 택시는 입간판 따위가 늘비하게 널린 아스팔트 도로를 지나 하영이 택시기사에게 일러두었던 삼층 상가 앞으로 멈추어 섰다. 하영은 손거울 따위의 것들을 토트백 속에 갈무리해, 다시 그 속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택시기사에게 건네었다. 택시기사는 리더기에 그것을 스캔고는 도로 하영에게 돌려주었다. 하영은 그것을 받는 것으로 택시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하영이 내린 택시의 탑은 곧 불이 켜지는가 싶더니, 택시는 '빈 차'가 써진 네온사인을 번뜩인 채 거리에서 사라진다. 하영은 택시가 사라진 골목에서 눈을 때, 동창회 현수막이 내걸린 상가의 문 앞에 바투 선다. 유리문은 어두컴컴한 층계와 함께 교복차림의 하영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흘러내린 자분치를 귀계로 쓸어 올린다. 그리고 한동안 그 앞에서 옷매무세를 다듬다, 문 옆을 비껴 모퉁이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모퉁이 사이의 좁은 거리에는 벽에서 튀어나온 갓등 하나가 콩초들이 두둑두둑한 시멘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하영은 그 거리 가장에 몸을 세우고는 가방을 뒤적였다. 곧 그녀의 손에 번듯한 담뱃갑이 쥐어졌다. 그녀는 그 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필터를 꼭 집었다. 탁 하고, 필터 속으로부터 날치 알 터트리는 느낌이 올라왔다. 하영은 그것을 입에 물고 한숨 들이쉰다. 아직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냄새가 싸한 박하 향에 섞여 입 안을 감돌았다. 곧 그 입에 침이 고여 온다. 하영은 그것을 삼키고 예의 라이터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하영이 숨을 들이 마시니 담배는 풍성한 연기를 내며 조금씩 타기 시작했다. 하영은 손의 담배를 좀 떨어트려 놓고 있다가, 다시 한 모금 들이마셨다. 화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곧 그 기운은 콧잔등을 아찔하게 하며 내쉬어졌다. 내뿜은 연기는 손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보다 조금 열었다. 하영은 입 안에 잔류한 멘솔 향을 혀로 다시다, 다시 한 모금을 더 들이마셨다. 하영은 이윽고 약간의 기분 좋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런 그녀의 뒤, 옆 상가의 뒷문으로 어느 남자가 걸어 나왔다. 인기척을 느낀 하영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앞걸음 질을 치면서 뒤를 휩 돌아본다. 남자는 그녀를 스 지나쳐 가다, 갓 등 아래의 콩초가 수북한 곳에서 몸을 수그렸다. 그리고 콩깃들을 고르는 것 같은 손놀림으로 꼬리가 제법 긴 장초들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하영

은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한 모금 빠는가 싶더니, 반 남짓 남은 콩초를 저만치 뚝긴 채로 그 모퉁이를 빠져 나와 그대로 현수막이 있던 상가의 유리문을 열어 층계를 오르기 시작했다.

하영이 다다른 곳은 삼 층의 호프집이었다. 하영은 문 앞계로 다가갔다. 문에 입혀진 검은 섀팅 너머로 가게안의 풍경이 들여다보였다. 가게 안은 옅은 조명이 벽을 비추고 있었고, 테이블에서는 옷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잔잔하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영은 그 문을 밀고 들어선다. 이윽고 그들의 불과해진 얼굴이 하영의 쪽으로 쏠린다. 그리고 제각기 웅성거렸다. 누구였지. 누구더라. 누군지 아는 사람. 아.

“부반장!”

테이블 사이에서 쟁반을 나르던 여자가 하영을 알아보자,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제야 아~하고 알은 소리를 냈다. 하영은 쟁반을 내려놓은 채 저에게로 다가오는 여자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비로소 그 사람이 반장이었음을 깨닫는다. 여자는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하영의 옆 수납장에 개켜놓더니, 모퉁이의 테이블로 하영을 이끌었다. 아직 한 자리가 남아 있는 그 테이블에서는 이미 둘러앉은 세 사람이 하영 쪽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먼저들 이야기 나누고 있어. 마저 정리하고 올게.”

반장은 하영을 의자에 앉혀 놓은 채 주방으로 사라졌다.

“다들 몰라보겠다.”

테이블 옆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하영에게 컵을 건네었다. 하영은 컵을 받아들고 여자가 술을 따라 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 여자는 짐짓 혀를 차더니

“어른이 술을 따를 땐 공손하게 받아야지.”

하며 하영을 꾸짖는 시늉을 했다. 앞자리에 앉아 있던 두 남자가 킁킁거렸다. 기지배. 하영은 두 손으로 여자가 따르는 술을 받는다. 하영의 잔에 술이 차오르면서 거품이 일었다. 곧 반쯤 남아있던 두 남자의 잔에도 술이 따라졌다.

“건배!”

네 사람이 잔을 맞추었다. 속이 딱 찬 유리잔들은 걸그럭 거리는 소리를 내며 부딪쳤다. 각자의 손등에 술잔의 내용물이 튀었다. 하영은 손을 거뒀 젖은 부분을 입으로 훑었다. 알싸한 기운이 하영의 혀끝을 타고 녹아들어갔다. 하영의 입술과 바투 댄 술잔은 점점 기울어 간다. 곧 하영은 그렇게 맥주 한 잔을 비워내 버렸다.

술잔이 오가기 시작했다. 테이블의 남자들은 계속하여 잔을 부딪쳤고, 연거푸 술이 따라졌다. 여자들은 간간히 화장을 고치며 서로를 해집는 시간을 가졌다. 하영도 그 속에 부대껴 잣대를 들이댄다. 학업. 능력. 사랑과 대인관계. 모두가 철 지난 이야기였다. 추억을 들추는 묘미가 시샘에서 흘러나온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 채, 술자리는 무르익는다. 누런 조명 빛 속에 불과해진 낮빛들이 춤을 췄다. 학력대비 시시비비 연애사가 그 안에서 판을 추고 하영은 그 장단에 놀아나며 동창들의 이름을 외우려 기를 쓴다. 그러나 술기운이 거나하게 도는지 이내 하영은 외우던 이름을 까먹고 다시 그 애. 저 애. 야. 너. 년. 파위로 동창들의 이름을 대신하고 만다. 이는 상처 입은 여인네들의 과녁이 되어, 하영을 도마 위에 오르게 하도록 부추겼다. 하영은 곧 무지막지한 질문 세례를 받는다. 하영이 너 취직은? 사귀던 사람은?

어쩐.

술자리의 여인들에게 하영의 변명은 중요치 않았다. 그저 하영을 동정하고 연관된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가 아니 있을 턱이 없다. 그러나 험담의 파랑을 달리 이끌어 나가기에 하영은 너무 취해버렸고, 기실 그녀의 신세가 너무 무기력하기도 했다. 임용고시에 매달린 시기가 벌써 사 년을 채웠고 그 공백은 그녀의 명문대 자격증으로 매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학벌주의 사회로 빚어진 열등감은 술자리 속에 그녀를 잠식시켰다. 너는

좋은 대학도 나왔는데. 나이가 찼지만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꺼야. 어려보이도록 면접 때 교복을 입고가는건 어머니? 잘 어울린다 키득 키득.

“하영아.”

우리 담배나 태우고 올라? 막연히 술잔을 쥐고 있던 하영에게 반장이 다가왔다. 아직 앞치마 차림이었다. 하영은 허정거리는 정신을 바로 잡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릴까.”

다녀와. 테이블 자리의 몇몇이 하영에게 손을 흔들었다. 하영은 그런 그들에게 웃음을 내보이다 반장을 따라서 술집을 나선다. 선팅 처리된 호프집의 문 너머에는 계단이 길게 내리어져 있다. 계단은 어둠에 젖은 채, 하영의 술기운을 빌어 더욱 까마득하다. 반장은 위태로워 보이는 하영을 붙잡고 한 계단씩 층계를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도 하영은 반장의 이름을 알 수 없었다.

건물을 나오자 둘은 바로 모퉁이를 돌았다. 건물에 들어서기 전 하영이 담배를 피웠던 골목이었다. 둘은 갓등 아래에 마주선다. 갓등 아래의 땅에는 아직 담배꽂초들이 수북하다. 하영은 먼저 담배를 뽑아 반장에게 권한다. 반장은 그것을 입에 물더니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반장이 담배를 대고 있던 그 불꽃으로, 하영이 얼굴을 불쑥 들이밀었다. 하영은 그렇게 잠시 숨을 들이마시다 떨어졌다. 불붙은 담배 꼬트머리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연기의 끝자락은 갓등을 간질이다 이내 사그라진다.

“애들이 좀 짓궂지.”

반장이 재를 통구며 실실 웃어왔다.

“그러게.”

“불러서 괜히 기분 상하게 한건 아닌가 싶다.”

“많이들 변했는걸.”

“너는 하나도 안변한 것 같다.”

“교복 때문인가.”

하영은 다시 담배를 물었다. 숨을 들이마시자 쌉사레한 연기가 들어왔다. 그제야 하영은 아직 필터를 깨물지 않았던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깨물었다. 탁. 소리와 함께 익숙한 향이 몸속으로 들어왔다. 싸한 멘솔향이 몸속에 떠도는 술기운과 섞여가는 것을 느끼며 하영은 기묘한 울렁거림을 느낀다. 울렁거림은 기침과 구토를 유발했다. 이를 잠재우느라 하영은 좀 전과도 같이 반장의 안부치레들을 건성으로 받아넘겨야 했고, 이는 대화의 소재를 떨어트리기에 충분했다. 말을 잃은 반장은 그 채로 잠시 담배를 태우다, 짧게 살라버린 궤초를 버리고 그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가게에 술을 대주는 선배가 사장 대리를 구하고 있어. 너 요새 힘든 거 안다.

반장이 주머니 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한설유람 최지원 공일공 오하나 이구에 공공삼공.’ 하영은 명함을 건네받는다. 이어 반장과 눈이 마주친다. 하영은 눈앞의 여자에 대해 셈을 하려 했지만 이내 포기하고 만다.

“고마워. 나는 한 대 더 피고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봐.”

그래. 올라와. 반장은 하영을 지나 모퉁이 속으로 사라진다. 좁은 길목 속에 하영이 혼자 남았다. 하영은 멍하니 서서 갓등을 올려다보다, 담배를 낀 손가락 두 마디가 따듯해져 오는 것을 깨닫는다. 어느새 필터까지 내려온 불기운이 하영의 손을 덥히고 있었다. 하영은 필터만 남은 담배궤초를 내려다본다. 하얀 필터가 하영의 립스틱 색이 번져 적나라했다. 하영은 궤초들이 도드라진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본다. 불현듯 하영의 머릿속에 남자 하나가 스며든다. 이 길목에서 궤초를 줍던 너저분한 행색의 남자였다. 그의 손아귀로 장초가 한 두 마디 씩 모여 가는 것을 하영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내가 피웠던 담배는 어디로 갔을까. 하영은 립스틱 마크가

새겨져 있을 자신의 장초를 찾아보지만 그녀의 장초는 길목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영은 남자가 벌건 얼룩이 진 장초를 입에 무는 상상을 하다, 비로소 바닥에 토를 할 수 있었다.

모임은 반장의 술집을 지나 노래방을 건너 다시 어느 술집에 잔을 걸치는 것으로 끝이 났다. 하영은 어느 순간 잠이 들어 버렸고, 눈을 떴을 땐 이미 침대에 누워 아침을 맞고 있던 차였다. 내가. 어제. 동창회에서. 교복을 입고. 술을 마셨다. 왜? 그녀는 이불속에서 어젯밤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려 애를 쓴다. 그러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돈이 없어서. 하영에게 양복을 맞출만한 일은 일어난 적이 없었고, 변변치 않은 옷을 입고 가기에 하영의 옷은 너무 초라했다. 어머니에게 손을 벌려 옷을 새로 맞추기에도 동창회는 초라한 행사였다. 동창회에 나가지 않자니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행사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패배한 사람들뿐이었으니까. 하영은 자신의 귀가 미치지 않는 먼 곳에서, 예전어나마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자신을 씹는 과정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비록 하영의 월급이 어머니의 씹지주머니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등 뒤에 학자금 대출이 수천이나 저당잡혀있다 하더라도 그녀는 그들의 부반장이었다. 명문대 졸업생이었고, 집 안의 장녀이기도 했다. 동창들에게 후줄근한 모습 따위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영은 발밑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옷가지들을 내려다본다. 모두가 허물이었다. 두 시간을 들여 이 옷 저 옷을 짜 맞춰 보았다면, 원단에서부터 드러나는 실타를 조금이나마 가릴 수 있었을까. 그 시간의 반 남짓을 들여 결국 하영이 선택한 옷은 장롱 구석탱이에 걸려있던 교복이었다. 지금도 하영은 교복을 입고 있다. 어젯밤의 사투에 잔뜩 흥클어 저서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푹 푹 내고 있다. 하영은 바닥에 널린 옷가지들을 침대 아래로 밀어 넣고 책상 앞에 앉아 판례집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어제 펴 놓았던 형법 판례 총정리는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었다.

甲은 乙만 들을 수 있도록 귀엣말로 乙이 丙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그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甲의 죄책은?

명예훼손죄. 아마도? 하영은 1번 문항에 체크를 하고는 문제의 판결요지를 들여다본다.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무죄였다. 하영은 문제 모퉁이를 샤프로 째 긁는다. 그리고 다시 다음 문제를 들여다본다.

甲은 몇 사람의 손님이 甲과 자리를 멀리하여 떨어져 있는 다방 안에서 乙에게 丙에 관한 협담을 하자, 丙과 사업관계로 친한 乙은 甲에게 왜 그러한 말을 하느냐고 힐책하였다. 甲의 죄책은?

무죄? 하영은 문제를 앞에 두고 잠시 머리를 싸맨다. 그러나 방 밖이 시끄러워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수가 여럿일 법한 목소리들이 틈새를 거쳐 하영의 귓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다른 날보다 유난히 시끄러운 날이었다. 하영은 샤프를 페이지 사이에 끼워두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러다 문 앞에서 멈춰 선다. 이대로 나갈까. 어젯밤 가족들이 하영의 교복차림을 보았었을까. 만일 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이라면 그것은 아무래도 좋을 일이었다. 하영은 서 있는 그 채로 옷을 벗기 시작한다. 맨 처음은 블레이저. 스웨터. 리본. 와이셔츠와 치마. 옷가지들은 한 차례씩 벗겨져 하영의 발밑에 아무렇게나 늘어져 갔고, 하영은 이내 맨몸이 된다. 속옷 차림이 되어서야 퍼뜩 샤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녀였지만 그녀는 결국 침대 앞에 엎어져 추리닝을 찾는다. 다른 옷가지들에 밀려들어간 추리닝 한 벌은 침대 밑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하영은 그것을 입고 방을 나선다. 방을 나와 하영이 먼저 인식한 것은 향내였다.

하영은 술잔을 돌린다. 원 채 그렇듯이 원 쪽으로 세 번. 오늘은 아버지의 제삿날이었다. 믿기지 않게도 오늘이었다. 쫄르륵.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하영의 술잔을 받아 사기그릇에 담아낸다. 하영은 잠시 뜬눈을 들이다 어머니와 함께 상에 석 번 씹 절을 하였다. 그 모습을 진아가 지켜본다. 진아는 열 살 남짓 하는 하영의 친척 동생이었다. 사실 하영은 아버지의 제삿날 짜도 그렇듯이 진아의 나이를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진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들을 도맡아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머니였다. 하영은 진아의 옆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루해 하는 양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진아는 커다란 눈으로 제사상에 꽂힌 양초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촛불은 곳곳이 서 있다가도

이따금 몸을 뒤튼다. 까만 그을음을 내면서, 촛농을 흘리기도 한다. 진아의 눈동자는 그 과정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 저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영이 내린 결론은 진아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였다. 너도 무죄. 땅. 땅. 하영의 어머니가 드디어 지방을 집었다. 그녀의 반대쪽 손에는 제사 음식들이 조금씩 떨어져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다. 언젠가 하영은 어머니가 물밥을 먹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원래는 길 밖으로 던져져야 했을 밥인데, 어머니는 태연히 TV를 보며 그것을 깨작깨작 먹어치우고 있었다. 집을 나서던 하영은 말하고 싶었다. 어머니 그건 모순이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여느 밥을 먹을 때와 같이 하영은 태연히 집을 나서고 말았었다.

지방이 태워지고 촛불이 꺼졌다. 향내가 내려앉은 제사상 앞에 온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제사상은 흥동백서와 같은 의례에 맞게 차려져 있었고, 하영이 앉은 자리에는 나물만이 놓여있었다. 하영은 며칠 굶기라도 한 듯이 허겁지겁 밥을 넘긴다. 여느 명절처럼 가족들은 식사와 함께 해우를 나눴지만 하영은 밥을 넘길 뿐이었다. 하영은 친척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고, 그들의 덕담을 들으며 식사를 이어나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하영은 그들이 반찬에 관심을 가지는 동안에 식사를 끝마쳤다. 그리고 빈 밥그릇을 싱크대에 담가놓고 진아를 불렀다.

“진아야. 우리 나갔다 올까?”

진아는 그 말을 듣고 밥상 앞에서 벌떡 일어난다.

“응. 밥이 맛이 없어.”

“밥 다 먹으면 그릇 들고 와서 담가.”

진아는 밥그릇에 수저 한 벌을 넣어 하영의 앞을 지난다. 밥그릇 속에는 밥이 반 남짓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진아에게 무어라 말을 하지 않았다.

“엄마 나 진아랑 뭇쫘 먹고 오게 만원만.”

어머니는 선뜻 주머니에서 만원을 꺼낸다.

“금방 올게. 나가자.”

하영은 어머니의 손에서 만원을 가져간다. 그리고 현관에 가 슬리퍼를 신고 진아를 기다렸다. 진아는 금방 하영을 따라 붙었다. 하영은 진아가 신발을 고쳐 신는 것을 보다가 옷 매무새를 가다듬어준다. 그러다 진아와 눈이 마주쳤다. 하영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뭐 먹고 싶어? 진아는 싱긋 웃으며 말한다. 과자 사줘. 둘은 현관문을 나선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선다. 엘리베이터 측면에 붙은 거울 두 장이 하영의 뺨진 머리와 후줄근한 차림새를 무수히 비춘다. 하영은 이미 몇 번쯤 반사되어 저만치 떨어진 하영의 몰골을 들여다본다. 거울 속 대칭의 나열은 쪽 이어져, 형광등 불이 닿지 않을 만치 늘어져 있다. 빛이 모자른지 색채가 어둡다.

땡. 문이 열립니다.

열린 엘리베이터 문 밖으로 진아가 달려 나갔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멈추어 뒤를 돌아본다.

“빨리 와!”

진아는 다시 뛰는 시늉을 하다 하영이 맞춰주지 않는 것을 깨닫고는 이내 하영을 기다리기 시작한다. 그 즈음 하영은 주머니 속에서 담배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담뱃갑 속에 담배는 한 대도 남아있지 않다. 하영은 빈 갑을 버리고 진아를 바짝 쫓아 붙는다. 그런 하영의 모습에 진아가 다시 저만큼 달아나고 만다. 아무래도 하영이 조금 더 어울려주길 바라는 듯싶었다. 허나 하영은 이 모든 것이 귀찮을 뿐이다.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 다가올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집에는 아직 친척들이 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간다면, 분명 공부를 하다 말고 노가리 판에 불려나갈 것이고, 미래에 대한 꺾끄러운 덕담들을 경청해야 할 테지. 하영은 그 덕담의 장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아를 데리고 나왔다. 집에 들어갈 즈음엔 가족들이 TV앞에서 한껏 나태해져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하영은 진아를 불러 아파트 단지 맞

은편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간다. 어서 오세요. 하영의 나이 또래 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둘을 맞는다. 하영은 진아를 과자가 있는 코너로 안내했다.

“먹고 싶은 거 세 개만 골라.”

“비싼 거 골라도 돼?”

“먹고 싶은걸 골라.”

진아는 진열대에서 물건을 들었다 놔다 하며 살 것을 고르기 시작했다. 하영은 카운터로 가 종업원에게 만원을 내고 담배를 주문한다.

“에쎄로 두 갑 줘요.”

천 원짜리 넷 장과 동전 몇 푼이 담배 두 갑과 함께 돌아왔다. 하영이 계산하는 것을 보고 진아가 불안했는지 고르던 과자 네 개를 집어 쪼르르 하영의 옆으로 달라붙는다.

“이것도 계산해 줘요.”

진아가 과자들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자 종업원이 그것들을 계산했다. 하나당 천 이백 원씩 해서 사천 팔백 원. 동전 몇 푼이 더 필요하다. 하영은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는다. 늘 한두 개씩 주머니 속에서 굴러다니던 동전은 당최 보이지가 않았다.

“과자가 너무 많다. 거기서 하나만 빼라.”

진아는 카운터 앞에서 머뭇거리다 과자 하나를 빼서 진열대에 도로 가져다 놓는다. 종업원이 과자들을 봉지에 담아 하영에게 건네자, 하영은 지폐 네 장을 내놓고 다시 잔돈을 거슬러 받는다. 여기 있다. 하영이 과자 봉지를 진아에게 안겨주고 편의점을 나선다.

하영은 현관문 앞 복도에까지 진아를 마중했다. 그리고 몇 층을 올라 옥상에 당도했다. 늘 그

렇듯이 옥상은 텅 빈 채로 하영을 맞이했다. 노출된 시멘트 바닥은 먼지를 가득 담은 채 햇살을 부시고 있었고, 먼지들은 그 위를 지나는 바람에 휩쓸린다. 하영은 난간으로 걸어간다. 난간 아래로 차도와 상가들이 내려다보인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딱 맞는 것이 담배를 태우기 좋은 날씨다. 하영은 주머니 속을 뒤진다. 손에 담뱃갑과 함께 명함이 집혀졌다. ‘한설유람 최 지원 공일공 오하나 이구에 공공삼공.’

“바지사장이라.”

어젯밤 반장의 차림은 남루했었다. 그녀의 처신 하나 하나가 비굴함이 엿보였던 것을 하영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비굴함이었을까. 무신경에서 나온 조심스러움이 비굴함으로 비쳐보였던 것은 아닐지. 사실 하영이 반장과 마주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동창회가 열리는 내내 테이블 곳곳에 음식을 날라야 했으니. 따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채 흘려버릴 사람이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하영의 손에는 아직 명함이 남아 있다. 그녀는 왜 술기운에 난타 당하던 하영을 구제하였는가. 하영은 반장이 불러낸 시간을 다시 곱씹어본다. 반장이 하영에게 담배를 권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에게 명함을 건네었던 까닭은. 이용하기 위해서? 쫄쫄 싸맷던 빈곤의 기운을 테이블 너머에서 내다보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홀로 추억에 잠겨 자신을 동정했던 것일까. 아무래도 좋을 일이었다. 우선, 하영에게는 돈이 필요했다. 그것을 반장은 알고 있었고, 하영만이 수 년째 부정하고 있었다. 하영은 자존심의 말로에서 허우적대다, 어느새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장의 이름을 뺀자 통화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내일부터 나오시면 되구, 옷은 잘 차려 입고 오셔야 해요. 정장으로. 정장이 없는데요. 저희가 지불해 드릴 테니 쪽 빼입으시고 영수증 끊어 오시면 돼요. 공부할 거리를 챙겨가도 되겠죠? 네. 이야기 들었어요. 경찰 간부 시험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괜찮으니 사양 말고 준비해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내일 뵈는 걸로……. 예. 수고하세요. 스피커 너머에서 통화가 종료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영은 담배를 피우러 올라왔다는 목적을 잊고 집으로 내려간다. 현관문을 여니 거실에는 아직 친척들이 둘러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하영은 신발을 벗으며 말한다.

“엄마. 나 취직했어.”

하영은 어머니를 비롯한 친척들이 무슨 말을 끝기도 전에 방 안으로 들어간다. 책상에는 아직 판례 책이 펼쳐져 있다. 하영은 샤프를 빼 책상 모퉁이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고 책을 덮는다. 텅. 형법 판례 총정리가 둔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하영 역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는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다.

품위를 유지하려면 결국 돈을 벌어야 했다. 하영이 양장점 앞 쓰레기통에 헌옷이 든 봉지를 버리며 든 생각이었다. 이참에 머리도 다듬을까. 깔끔하게 갈아입은 정장 안주머니에는 아직 돈이 좀 남아 있다. 어머니가 하영에게 옷을 사 입으라 주었던 돈뭉치의 일부였다. 이십 여장 남짓 되었던 만 원짜리들은 옷을 맞추고도 다섯 장이나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하영의 발걸음은 가벼울 수밖에 없다. 하영은 남은 돈 만큼은 누군가에게 떼뻗해질 수 있는 것이다. 커피 집 종업원이나 택시기사 뭐 그런 것들에게. 하영의 걸음은 양장점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멈추어 진다. 바로 부평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직 버스가 올 기미는 없다. 하영은 정류장에서 좀 떨어진 채로 담배를 태우기 시작한다. 바지사장을 생각하며. 사실 범인도피죄의 형량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백. 삼백? 하영은 전과가 깨끗한 사람이었고, 집행유예 따위는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벌금형으로 처리될 것이었기에, 자신이 경찰이 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도 했다. 오히려 몇 천원에 한 시간씩 저당 잡히는 아르바이트 따위가 발목을 붙잡겠지. 수사에 협조만 한다면, 그래. 서너 달만 하다 꼬리가 잡혀도 칠백은 나올 것이다. 그 돈으로 옷도 사고 학원도 끊자.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더러운 짓을 해서라도 고시를 영위해야했다.

하영이 떡대를 따라간 것은 버스에서 내린 후였다. 둘은 대로변에서 변화가로, 점점 후미진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변화가 뒤편의 야트막한 상가단지들은 모두 셔터가 닫혀져 있다. 간간히 보이는 쇼 윈도우에는 마네킹 하나 없이 의자만이 달랑 놓여져 있었고, 간판이 있을 자리에는 방수천이 덮여 있다. 그러나 거리는 유난히 깨끗하다. 둘은 그 거리를 지나치는 듯 싶다 별 특색이 없는 셔터문 앞에 멈추어 선다. 하영은 떡대의 등을 뒤쫓는 동안 수많은 질문을 던져왔지만, 하영이 던진 수많은 질문 중 떡대가 대답해준 것은 막바지의 질문 하나 뿐.

“여기는 어디예요?”

“빠 촌.”

떡대는 쭉그려 앉는가 싶더니 바닥의 셔터를 잡아다 어깨만치 들어올린다. 접힌 셔터 사이로 유리문 두 짝과 함께 불이 켜진 상가의 내부가 훤히 드러났다.

“들어가.”

하영은 건물 안으로 발을 들이민다. 이윽고 뒤에서 셔터 닫히는 소리 울려 퍼진다. 하영은 흡사 고시원을 옮겨다 놓은 듯한 내부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떡대에게 이끌려 어느 자그마한 방으로 들어가고 만다.

“오셨어요?”

그곳에 하영을 부른 남자, 최지원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하영에게 앉을 자리를 권한다. 그리고 떡대에게 음료수를 주문했다. 떡대는 최지원에게 고개를 한번 팍 숙이고는 그대로 방을 나가 버렸다. 이내 방 안에는 낯선 기류가 가득 찬다. 하영은 팍 쫓아버린 어깨를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쉽사리 적응이 되지 않았다. 눈앞의 남자는 화류업계의 대부로 보였고, 방음이 덜 된 벽 사이로 간간히 여인네들의 천진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이곳은 사창가였다.

“예쁘시네. 이야기 나눌까요?”

최지원은 그런 하영의 모습을 음미하다 서류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낸다. 이어 둘 사이를 가로지르던 테이블에 서류 몇 장이 놓여진다. 하영은 테이블 아래에 놓인 활자에 묻힌 채로 대답했다.

“네.”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 건데. 옷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계시고. 하실 일은 없으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 아이들 시키시면 돼요.”

“네.”

“지금 너무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뇨. 괜찮습니다.”

“옷값은 미리 하영 씨 통장으로 넣어놨어요. 마흔 장 정도 넣었는데. 어떻게. 더 필요하셨나요?”

“아뇨. 충분했습니다.”

“하하. 옷이 좋아보여서 모자랐으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습니다.”

어느새 들어온 떡대가 유리잔에 각각 식혜를 담아온다. 떡대는 하영편의 테이블로 식혜를 놓으며 실 실 웃는다. 맛있게 드세요. 하영은 긴장감에 정신이 멍 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은 어느새 하영의 발목을 옥죄고 있었고, 하영은 계약서 속의 하영처럼 을(乙)이 되어 있었다. 하영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눈앞의 남자에게 먹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말 하나 하나가 포석이 되어 판에 깔리는 기분. 테이블에 놓인 서류뭉치들은 명의를 이전하는 계약서와 함께 사업장이 적발될 시,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각서와 효력이 없을 그 각서를 뒷받침하는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끼치는 갑(甲)의 모든 불이익을 을(乙)이 상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로 이루어져 있다. 본 계획대로라면 후의 각서들은 하영이 절대 찍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최지원은 하영에게 별스럽지 않은 사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하영은 행여 속내를 읽힐까 대답에 조심스러워진다. 이러한 반응을 눈 앞의 남자가 아니 놓칠 리가 없다. 찌처럼 흔들리는 하영의 모습은 최지원으로 하여금 줄을 잡아 당기게 했다.

“그럼 슬슬.”

최지원은 테이블 위 서류들을 싹 긁어 모아 각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뭐라도 먹으러 갈까요.”

서류 다발이 하영에게로 건네져 온다. 하영은 서류를 공손히 받고선 훑어보는 척을 한다.

그러나 이내 서류를 내려놓는다. 하영의 주머니 속에서 도장을 꺼내진다. 도장은 인주를 적신 뒤 계약서의 서명란에 찾아들어가 박혔다. 그 뿐이었다. 하영은 그 채로 가만히 있다가 최지원을 찾는다.

“사장님. 우리 각서도 필요한가요?”

“아무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최지원은 슬쩍 하영의 쪽으로 머리를 들이민다. 그러나 하영은 차마 서류다발 위로 얼굴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각서의 내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어디보자.”

서류가 하영의 쪽에서 넘어갔다. 최지원은 서류를 슬쩍 보다가 싶더니 그대로 찢어버렸다. 재미있는 친구네.

“네?”

“이 서류가 필요 없으면 바지사장도 필요 없는거예요.”

최지원은 별떡 자리에서 일어난다. 하영도 그를 따라 덩달아 일어나고 만다. 그가 하영에게 묻는다. 하실거예요? 하영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얘들아! 최지원이 옆방과 이어진 벽을 두드리자, 금세 방 안으로 떡대 셋이 튀어들어왔다.

“옷은 두고 가셔야죠.”

하영은 남자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 떡대들이 몰려들어온 방문과 마주한 채 머뭇거리다. 그러나 떡대들은 비웃는 기색도 없이 뒷짐을 진 채로 하영을 내려다본다.

“싫으세요? 벗겨 드릴까요?”

움츠린 채로 서 있던 하영은 떡대들이 뒷짐을 풀고 나서야 옷을 벗기 시작한다. 블레이저. 화이트 셔츠. 스커트. 옷들이 한꺼풀씩 하영의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간다. 비로소 하영은 목이 늘어난 티셔츠 아래로 까만 레깅스 한 장을 달랑 걸친 기묘한 모습이 되었다. 떡대 하나는 하영의 뒤에 쭈그려 앉아서 하영이 벗은 옷가지들을 하나씩 개켜놓다가, 옷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자 하영을 올려다 보며 물어왔다.

“더 안 벗으십니까?”

“나머지는 제껴예요.”

하영의 말에 방 안 모든 남자들이 배를 잡고 웃어재끼기 시작한다. 하영은 등을 짝 타고 올라 오는 수치심에 골반까지 내려온 티셔츠를 손으로 더욱 내린다. 그리고 떡대들 사이를 비집고 방을 나섰다. 등 뒤에서는 아직 웃음 소리가 남아있다. 그녀는 그 소리를 피해 건물을 나서려 했으나, 건물 입구는 언제 쳐졌는지 모르는 셔터가 가로막고있다. 하영은 그 앞에 쭈그려 앉아 셔터를 올리기위해 기를 쓴다. 그러나 녹슨 셔터는 그녀의 무릎깎박에 올라와지지를 않는다. 하는 수 없이 하영은 쭈그린 채 개처럼 상가를 빠져나가야 했다.

날은 아직 저물지 않았다. 해는 아직 중천에 떠서 인적이 없는 사창가 거리를 내리비추고 있다. 그리고 깨끗한 거리 윗편의 사창가 옥상들에서는 여인네들이 무리를 지어 담배를 태우고 있다. 허정거리며 사창가를 빠져나가고 있던 하영에게 그녀들이란 태양을 등지고 서 있어 까마귀처럼 시꺼멓게 보이는 한 무리 날짐승들에 지나지 않았다. 하영은 자신이 그녀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그러다 펄떡 하영의 머릿속에 반장이라는 존재가 스쳐지나간다. 서슬퍼런 눈이었던가. 말이 조금 빨랐던가. 그것 또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교복을 입고 나간 동창회 자리나, 반장. 아버지 제사에 모인 친척들

따위를 잠시 잊어버리기로 결심한다. 지금 당한 치욕은 되갚아줄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기에. 형법판례에 적혀있을 이번 사건의 해답은 아마 사 번이겠지. 하영은 자조하며 걸음을 옮긴다. 사 번의 이름은 무죄. 법의 잣대를 벗어나도 최지원은 무죄.

톡.

아스팔트 바닥에 장초 한 대가 불뚱을 튕기며 떨어졌다. 하영의 눈 앞이었다. 반 남짓 남은 장초는 바닥에서 낮게 지글거리며 연기를 피워 올린다. 순간 하영은 물로는 채워지지 않을 갈증을 느낀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허벅지 언저리를 더듬는다. 그러나 주머니에 담배가 들어 있을 스커트는 이미 빼앗겨 버린지 오래다. 담배는 옥상에서 떨어진 것일까. 하영이 서 있는 동안에도 담배는 계속 타고 있다. 하영은 정수리 위로 떠 있는 몇 개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면서 장초가 있는 자리에 몸을 수그린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 입에 물었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을 주시하던 무언가가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쫓겨난 것을 깨닫는다.

하영이 상가단지를 나섰을 쯤인가. 그녀의 손에 꽂혀있던 담배가 다 타버리고 말았다. 하영은 필터만 남은 담배를 땅으로 뚱기고 변화가로 나선다. 하영의 걸음이 빠르다. 집으로 돌아가 법을 공부해야 했을 테니까.

# 보이다의 작가는 이야기 1.

No.1. 하겠습니까.



No.2 월



No3. 집필과 연애



No4. 결혼과 현실



Qido

# 보이다우 작가사는 이야기

## 3. 부모 맘

No.9. 부모 맘



No.10. 타협





# 보이다우 작가사는 이야기

## 4. 단계

No.13. 쓸 때



No.14. 끝나갈 때



No. 15. 끝나고



No. 16. 나오고



*Qida*



# 보이다워 작가는 이야기

5. 오지랖

No. 17. 입사



No. 18. 10년 차



No. 19. 할 수 있어



관찮아  
교장 안 돼도



No. 20. 아무래도



Qi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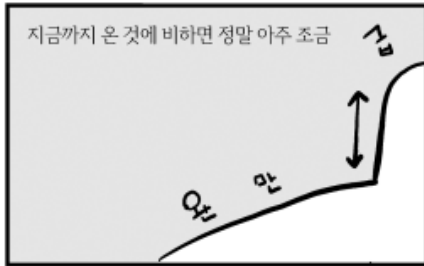
# 밤이 더욱 작가는 이야기

## 6. 퇴고

No.21. 등산



No.22. 암벽등반



No. 23. 풍경이 좋아



마감이 늦잖아



폼 잡지 말고  
내려와 이 작가가야



이야

No. 24. 육아 외전



암튼 몰라. *Q side*

# 보이다운 작가는 이야기

## 7. 자백

No. 25 자백



No. 26 자백2



No.27. 굴리기



No.28. 살아있어



Qi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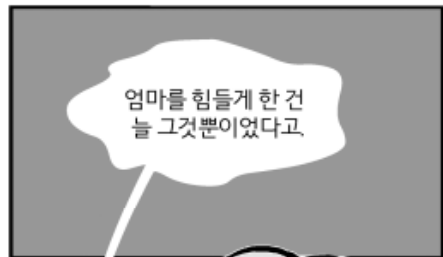
# 보이다운 작가는 이야기

S. 욕심

No.29. 힘들어



No.30.아냐



No. 31. 생명인데



넌 글렀으니 다음 애부터



No. 32. 그래도



괜찮아요 그보다 더 못 쓸 수도 있으니까.



Qido

# 보이더의 작가는 이야기

## 9. 필터

No. 33 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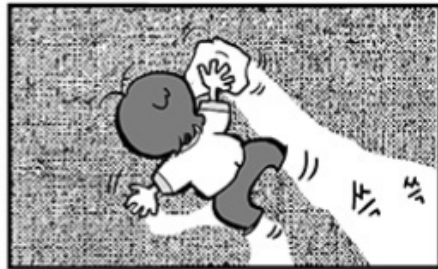
No. 34 성장 단계



No. 35 과황



No. 36 청소



\* '보이다'는 소설가 김보영의 웹툰 작가 필명입니다.



No. 39. 그냥 가



No. 40. 아름답지 않은 산은 없다



내가 큰 도움 됐지? 그지?



## 생활글 분반 강의 자료 (강사\_이계운)

### 1. 김중미 작가의 글을 읽고, ‘글쓰기’에 대해 생각해 보기

### 2. 나만의 글쓰기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

#### 나는 어떻게 쓰는가⑥ 동화작가 김중미

글보다 앞서는 게 삶

2000년, 창비의 ‘좋은 어린이 책’에 당선이 되어 어쭙잖게 동화작가가 되었다. 그 뒤로 습작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첫 작품인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쓰기 전까지 작가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 때문에 습작기를 제대로 거친 적도, 문학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왜 작가가 되었느냐는 물음에 나는 고작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이 동화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저 나는 어떻게 동화를 쓰게 되었는지, 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 정도가 될 것 같다.

#### 가난한 아이들에게 “괜찮다” 말해주고 싶어 동화 공모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1999년 여름이었다. IMF가 막바지에 달할 무렵, 마스크에서는 한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떠들어댔다. 그 시기에 빈민지역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 IMF로 일자리를 잃고 살던 이들에게 구세주 같던 신용카드 빚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다. 동네 곳곳에서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라는 말의 의미가 그때만큼 절절한 때가 없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누구네 엄마가, 혹은 누구네 아빠가 집을 나갔다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친척집, 보육원으로 흩어지거나 한밤중에 부모의 싸움을 피해 맨발로 뛰어나오고, 학교 급식 한 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그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같이 우는 것밖에 없었다. 무기력한 내 자신 때문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다. 그 무렵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소풍을 갔다. 그런데 전철 안에서, 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는 사람

들의 시선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말했다. “꼭 70년대 애들 같지 않냐? 아직도 저런 애들이 있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입 밖으로 튀어 나온 말은 “그래서 뭐? 가난한 게 뭐 어때?”였다.

며칠이 지난 아침, 신문을 보다가 창비 좋은 어린이 책 공모 광고를 보았다.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문득 동화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동화건, 소년소설이건 상관없었다. 뭣도 아닌, 보잘 것 없는, 가난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을 향해 가난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다. 가난은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지 아이들이나 그들의 부모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앞서가려고 누군가의 것을 빼거나 짓밟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판잣집보다는 아파트가 편하고,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고, 물질적 결핍보다는 물질적 풍요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결핍이 사람을 더 넉넉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처럼 가난한 아이들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싶었다. “괜찮아.”

그러나 막상 글을 쓰려고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일단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정해졌으니 이제까지 내가 만난 아이들의 편린들을 모아 중심인물들을 만들었다. 중심인물의 성격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수와 명환이란 인물은 1995년 김영삼 정부가 청소년 범죄와의 전쟁을 벌일 때 경험했던 우리 동네 남자 아이들의 모습에서 가져오고, 숙자, 숙희 쌍둥이 자매는 공부방에서 만난 사춘기 여자 아이들의 모습에서 전형적인 특성을 찾아내 만들었다. 쌍둥이 자매의 특성은 마침 공부방에 다니던 쌍둥이 자매 덕분에 자세히 묘사할 수 있었다. 물론 현실의 쌍둥이 자매들과 소설 속의 자매는 전혀 다른 인물들이었다. 쌍둥이들의 부모 역시 가난한 동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영호란 인물은 공부방에서 자란 청년의 모습에서, 김명희 선생은 우리 식구들이 사용하던 공중화장실에서 자주 만나던 인천교대 여학생에게서 캐릭터를 잡아냈다.

중심인물들이 이야기를 펼쳐갈 배경은 12년간 살아온 만석동이었다. 내가 글을 쓰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어 사라질 우리 동네의 모습을 글로 남겨놓고 싶어서였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빈민지역의 역사가 만석동의 골목 구석구석에, 판잣집의 다락 창문과 지붕 하나하나에 깃들여 있었다. 만석동의 골목골목, 그곳에 켜켜이 쌓여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잘 묘사하는 것이 만석동의 역사를, 그곳에 살았던 이들의 흔적을 남기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하면 그 골목을 생생히 묘사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숙제였다. 이야기의 열개를 짠 뒤에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주인공 아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그 아이들이 겪는 사건에 따라 만석동의 풍경을 묘사해 넣었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글 쓰는 작업이 언젠가 여행 중에 보았던 태피스트리를 짜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만석동이 낯설이라면 등장인물과 사건은 씨실과 같았다.

### 어린 시절의 그림자가 글 쓰게 한 힘이었구나

이야기를 짜는 낱말이나 문장은 태피스트리를 짜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낱말이나 문장을 선택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간결하고 쉬운 말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 아이들처럼 어휘력이 떨어지거나 책과 친하지 않는 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 지금 여기를 사는 아이들의 생각과 말을 살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쓰는 낱말 그대로의 언어를 쓰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의 말투를 그대로 쓴다면 아마 부사와 형용사의 사용이 몇 개로 압축되고 말 것이다. “헐, 대박, 짱, 찐다. 존나, 진심” 부정, 긍정의 표현들이 뒤엉켜 있다. 심지어는 좋든 나쁘든 “개~”란 접두사를 붙여 쓴다. “개잘생겼다, 개못생겼다. 개맛있다. 개맛없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변화나 표현에 둔해지고 말도 아주 단순해진다. 사고의 깊이도 다양성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나는 아이들이 잃어버린 다양한 표현들을 찾아주고 싶다. 어렵지 않고 쉬운 글, 살아 있는 글을 쓰기 위해 사전은 필수다. 그래서 <괘이부리말 아이들>을 쓸 때 항상 <우리말 갈래사전>을 곁에 놓고 썼다. 그 뒤로는 <더 깊고 쉬운 말 사전>, <바른말글 사전>을 곁에 두고 사용한다.

하루 중 글을 쓸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은 공부방 아이들이 다 돌아간 뒤인 자정부터 새벽 서너시까지였다. 하루 종일 공부방 일, 집안일, 육아로 지쳐 있다가도 컴퓨터 앞에 앉으면 가슴이 설렸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는 막막했지만 점점 글 쓰는 일이 재미있어졌다. 내가 만들어 낸 새로운 인물들이 생명을 갖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야기에 빠져 들어갔다. 글을 쓰는 석 달 동안, 공부방 일을 하고 아이들을 만날 때나 집안일을 할 때나 머릿속에는 늘 동수와 동준이, 숙자와 숙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를 마치고 나니 바로 다음날이 공모 마감 날이었다. 퇴고를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를 때였으니 눈앞이 캄캄했다. 원고를 차분히 읽어보면서

교정을 볼 시간조차 없었다. 그런 글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데 남편이 말했다. “보내, 어차피 당신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쓴 거 아니잖아. 당신이 석 달 동안 밤마다 글 쓰는 동안 나도 힘들었거든. 아까워서 안 되겠어.”

그렇게 마감 당일 원고를 보냈다. 원고를 보내놓고 며칠을 앓았다. 원고를 보내고 나서야 내가 글 쓰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내 안에 참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것도 깨달았다. 첫 작품을 탈고하고 보니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그림자로 남아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 청소년기까지 살았던 기지촌의 기억, 어린 시절 앓았던 병으로 얻었던 열등감과 우울증, 외로움, 그리움들이 스멀스멀 되살아났다. 그래서 20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았던 기지촌을 찾아가 오랫동안 물어두었던 내 그림자와 마주했다.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가 내가 결국 글을 쓰게 만든 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원고를 보낸 지 석 달이 다 되어갈 즈음, 창비 좋은 어린이 책 공모에 당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그해 초여름, 첫 작품이 세상에 나왔다. 바로 <팽이부리말 아이들>이다. 처음 책을 받아들고는 읽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부끄럽고 또 두려웠다.

## 문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던 시절

첫 작품을 낸 뒤 한 신문사의 문화센터 아동작가학교의 ‘작가와의 만남’에 초대를 받아 갔다. 그리고 습작기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그때 문득 스스로 물었다. 내 글쓰기의 시작은 어디서 부터일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다. 항상 읽는 것에 목말라했다. 그러나 우리 집은 가난했고, 지금 처럼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 되지도 않았다. 내가 책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때는 성탄과 생일뿐이었다. 다달이 <소년중앙>을 사보는 것도 감지덕지한 형편에 책을 사달라고 조르지 못했다. 그 시절은 교육열에 불타는 부모들이 집집마다 전집 한 질쯤은 들여놓던 때였다. 대개 백과사전이나 계몽사 판 세계아동문학전집이었다. 친구네 집에 놀러갈 때마다 벽돌색 표지의 50권짜리 문학전집만 보면 탐이 났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월부라면 질색인데다 책은 절대 전집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땐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그렇듯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상상놀이 뿐이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상상을 했다. ‘백혈병에 걸려서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 하면 계

몽사 판 아동문학전집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책을 다 읽고 난 뒤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죽는다.’ 그러나 백혈병이 어디 흔한 병인가? 어느 날엔가 아버지에게서 시인 릴케가 장미가시에 찢린 상처로 백혈병에 걸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침 친구네 집 담장에 빨간 넝쿨장미가 한창이었다. 손가락 끝이 벌겋게 성이 나도록 가시에 찢렸건만 백혈병은 내게 찾아오지 않았다. 하루는 월간 <소년중앙>을 뒤적거리다 창작동화공모를 보았다. 동화작가 등단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내 눈에 보인 것은 장려상인가에 상품으로 준다는 계몽사 판 아동문학전집이었다. 당장 원고지를 사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어렵פות이 기억나는 것은 물개와 주인공의 사랑에 관한 글이었다는 정도다. 아마 디즈니 영화에서 본 동물 영화를 모방했던 것 같다. 70매 가량의 원고를 다 쓰고 조심스레 동생에게 읽어보라고 줬더니 평평 울며 감동적이라고 했다. 한껏 우쭐해진 나는 어머니 몰래 자전거를 타고 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원고를 부쳤다. 그러나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동화 습작인 셈이다. 5학년 때의 일이었다.

스무 살까지 나는 그저 책 읽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아이였다.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일기를 꼬박꼬박 썼고, 가끔 일기 상을 받았다. 그때 썼던 일기는 선생님께 보이기 위한 글이었다. 중학교 때는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하고 전학을 하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심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 갈등을 이겨내기 위한 나만의 일기쓰기를 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는 교지에 한두 번 사르트르의 작품과 인물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쓴 것이 전부였다. 그러면 서도 마음 한 구석에 막연히 글쓰기에 대한 동경은 있었는지 한 달 용돈 1000원을 받으면서 200원 남짓하던 월간 <문학사상>을 꼭 사서 보았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이성애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이미 세상에 없는 ‘이상’이나 ‘카프카’와 상상 연애를 했고, 조세희, 황석영의 작품을 통해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세상에 일찍 눈을 떴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문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지만 내가 문학을 하는 당사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종합병원의 원무과에서 사무직 노동자로 일하게 된 뒤 글쓰기는 더 먼 것이 되었다.

구로구와 영등포구 경계에 있던 그 병원의 환자들은 중산층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반은 가난한 노동자이거나 봉천, 신림, 가리봉의 빈민들이었다. 그 큰 병원에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의술이 아닌 돈이었다. 병원 이사와 원장부터 화장실 미화원까지 자본주의 사회의 온갖 계급, 계층을 다 모아둔 큰 대학병원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보였다. 그때 나는 원한다면 누구의 편이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할 권리와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설 자리를 바꾸는 대신 그 부조리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을 선택했다. 다행히 병원 도서관 사서의 눈에 띈 덕에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다. 내가 원하면 병원 도서관에 <실천문학>, <공동체문화>, <민중교육> 같은 무크지가 들어오고, 한길 제 3세계 문학선집과 사상전집 같은 책도 전집으로 볼 수 있었다. 문학을 통해 현실에서 만나는 노동자, 도시빈민들에 대해 더 애정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5년간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내가 선택한 것은 가난하게 사는 삶이었다. 빈민지역에 들어가기 전 내 자신과 약속한 것은 마약 같은 책읽기, 록음악과 재즈, 연극, 영화 따위와 결별하기였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다.

### 만석동 빈민촌에서 글의 힘을 깨닫다

그런데 빈민운동을 하기 위해 간 만석동에서 아동문학을 만났다. 공부방을 열기 위해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책을 구하러 다니다가 창비에서 아동문고 100권을 기증 받았다. 아이들에게 권하기 위해 읽기 시작한 아동문학에 내가 먼저 빠져들었다. 책과 친하지 않은 아이들이 문학과 친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동화를 노래극, 사진 책, 연극, 인형극으로 만들며 놀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글쓰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공부방 일을 하면서 글을 쓸 일은 1년에 서너 번 공부방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소식지를 만들 때와 공부방 자모들에게 알릴 글을 보낼 때 정도였다. 그러다 1992년부터 어머니들과 글쓰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글교실로 시작했다가 어머니들과 모둠일기를 쓰면서 글쓰기 교실로 바꿨다. 어머니들은 글을 쓰고 읽게 되고 그 글을 통해 당신들의 삶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에 감동하고 감사해했다. 어머니들이 쓰는 글들은 한 자 한 자가 진실이 담기지 않은 글이 없었고 허투루 쓴 글이 없었다. 2년간 어머니들과 모둠 일기를 쓰며 글을 쓰는 태도에 대해 배웠다. 그 뒤로 겨우 14~16페이지짜리 소식지를 만드는 일에도 정성을 다하게 되었다. 어찌면 그때가 나의 습작기였는지 모르겠다.

만석동은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빈민지역이다. 일제강점기 말 일본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던 곳이라 공장과 미곡창고가 있어 한국인 노동자들이나 집이 없는 토막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 지금도 9번지는 그때 관사로 쓰던 판잣집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 뒤 한국전쟁 뒤로는 피난민들이, 6,70년대를 거치면서 이농민들이 모여 살았다. 만석동은 항구와 가깝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도심지와 가까운 탓에 조직폭력배들이 많았다. 골목마다 대마초

를 피운 요구르트 병과 빨대나 나뉘는 일이 흔했고, 집집마다 아들 한 둘은 감옥을 들락거렸다.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에 좀 주눅이 들었지만 2, 3년이 지나니 그들도 그저 우리 옆집 할머니의 아들이거나 공부방 아이의 삼촌이거나 아버지였다. 만석동에 들어가 산 지 4년 쯤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할머니가 찾아오셨다. 아들이 조직폭력배의 행동 책인데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다고 탄원서를 써달라는 것이었다. 그 아들은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과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터였다. 탄원서를 써 보기는 커녕 본 적도 없으니 막막했다. 더욱이 죄를 지어 구속된 것인데 도대체 어떤 탄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내 당혹스러운 표정을 읽으셨는지 할머니가 훌쩍이면서 아들 셋을 키운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다. 하루 종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밤새 탄원서를 썼다. 자식 둘이 범죄자가 된 어미의 심정이 어떨지 그 마음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다. 얼마 뒤, 할머니께 내 덕분에 감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글쓰기에 대한 보람을 맛본 첫 번째 기억이다.

그리고 다시 얼마 뒤, ○○과의 서열 4, 5위를 다투는 이의 방문을 받았다. 키가 작은 편이었지만 다부진 몸에 어깨부터 팔목까지 문신을 새긴 덕에 한눈에 상대방을 주눅 들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공부방에 와서는 마치 선생님 앞에 불려나온 아이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쪼쪼맸다. 내 쪽으로는 얼굴도 못 돌리고 남편을 보며 말했다. 그가 온 까닭은 구속된 동생의 탄원서를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동생은 한때 공부 잘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주로 간다는 K 공고를 나와 대기업의 노동자로 성실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다 잠시 형을 보러 인천에 올라왔다가 친구들과 대마초를 하다 걸렸다는 것이다. 자신은 비록 조직폭력 집단에 들어가 살지만 자신의 동생만은 그렇게 살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묻지 않았는데도 10대 초반에 부모님을 잃고 동생과 둘이 할머니 밑에서 자란 이야기를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동생을 지키고픈 형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진심을 담아 탄원서를 썼다. 그 뒤로 우리 공부방은 조폭의 보호를 받는 든든한 공부방이 되었다. 어쩌다 시내에 나가면 어깨가 떡 벌어진 청년들이 달려와 인사를 하고, 업소에 들어가는 생수가 공부방 문 앞에 잔뜩 쌓여 있을 때도 있었다. 어린이날이 되면 간식도 보내주었다. 글의 힘을 깨달은 것이 그때라면 좀 생똥맞을까? 동화작가라는 이름을 얻은 뒤에도 나는 가난하고 상처받은 아이들, 외로운 아이들, 길을 잃은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쓰는 게 내 몫이라고 생각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글을 쓰는 작가들은 무척 많다. 그리고 저마다 문학을 통해 표현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고, 깊이

와 재미도 다르다. 엉뚱하고 내성적이라 늘 외로웠던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청소년 시절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은 문학이었다. 내가 쓰는 글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런 위로가 되길 바란다. 또 결핍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조금 불편해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상을 보게 하고 싶다.

### 상처 받은 아이의 관점으로 세상 보려 노력

나는 글보다 앞서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삶, 오늘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면 어린이문학이든, 청소년문학이든 가능하지 않다. 창작을 하는데 첫 걸음은 역지사지의 마음이다. 혹은 측은지심. 혹은 연민, 즉 나 아닌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나에게 그 타인이 때로는 초등학생밖에 안 된 어린이일 수 있고, 반항기 가득한 10대일 수도 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어른의 관점이 아니라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하고 싶었다.

“숙자야, 청소 끝나고 남아.”

청소가 끝나고 빈 교실에 혼자 남아 담임선생님을 기다리던 숙자는 몇 번이고 그냥 나가 버리고 싶었다. 선생님이 어머니 이야기를 꺼낼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교실로 들어온 선생님은 책상 앞에 앉자마자 숙자를 보고, “숙자야, 아직 엄마 집에 안 들어오셨니?”하고 물었다.

“.....”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야?”“.....”

숙자는 선생님이 물을 때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혹시 숙자, 엄마 때문에 운동회 연습도 못하겠다고 그런 건 아니니?”

선생님은 숙자 마음을 떠보기라도 하려는 듯 물었다.

“아뇨, 정말 아파서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

“저 햇볕에만 나가면 어지럽구요. 배도 아파요. 부채춤 출 때 돌고 나면 막 토하구요.”

“그럼 병원에 가봐야지.”

“아빠가 바쁘셔서 그래요. 오늘 갈 거예요.”

선생님은 숙자 말을 듣고 그냥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을 건넸다.

“숙자 너, 요즘 숙제도 안 해오고 일기도 계속 안 내던데?”

“.....”

“숙자야, 숙자는 어머니가 계실 때도 뭐든지 혼자 잘했지? 어머니가 안 계실수록 제 할 일은 제가 스스로 잘해야지. 선생님은 숙자를 착하고 성실한 어린이로 봤는데 요즘 실망스러운 걸.”

〈중략〉

숙자는 선생님의 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애썼다.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선생님도 께이부리말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선생님과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은 숙자의 마음 깊은 곳에 난 상처를 쓰다듬어 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숙자는 선생님한테, 사실은 부채춤 출 때 입을 한복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운동회 때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일기를 쓰려고 일기장을 펴 들면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일기를 쓸 수 없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중략〉

운동회 연습 때문에 오늘도 수업이 일찍 끝났다. 선생님은 오늘도 숙자를 부르지 않았다.

숙자는 하루 종일 지난번처럼 선생님이 불러 주기를 바랐다.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부채춤을 추라고 하면 출 생각이었다.

5,6교시는 수업을 하지 않고 5,6학년들이 모두 부채춤 연습을 했다. 아이들이 부채춤을 추는 동안 숙자는 철봉 앞에서 모래 장난만 하고 놀았다. 부채춤을 추지 않으면 교실을 지켜야 하는데, 숙자는 일부러 운동장에 나와 한 시간 반 동안 내내 모래 장난을 했다. 선생님 눈에 띄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바람도 아무 소용없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숙하고 마음자리가 깊다. 상처가 많을수록 속마음을 숨긴다. 그 대신 온 몸으로 말을 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몸짓을 잘 이해하지 못해 서로 동문서답을 할 때가 많다. 물론 아이들 역시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아픈 마음을 솔직히 드러낼 방법이 없어서, 혹은 그 아픈 마음을 드러냈다가 또 다른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 어른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다. 〈께이부리말 아이들〉을 쓰면서 나는 동수와 숙자, 숙희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싶었다. 〈내 동생 아영이〉에

서는 다운증후군인 동생 때문에 속상해하는 영육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싶었다. <반두비>에서는 이주민으로 사는 방글라데시 소녀 디이나의 마음을, <종이밥>에서는 송이와 철이의 외로움을 드러내고자 했다. 관찰자의 시점으로 상처 받은 아이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자리에 서서 그 아이의 현실이나 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어린이에게 주는 글을 쓰려면 항상 아이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어린 시절 책은 꿈을 꾸게 하고, 먼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언어가 주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했다. 소설을 통해 다양한 인간상을 경험하고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 누구나 상실과 이별의 아픔을 겪고 혼자서 외로움을 견뎌야 하며, 그리움을 몇 개씩 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 힘으로 쉽지 않았던 성장기를 견뎌냈다. 또 책을 통해 세상에는 힘세고 강한 소수와 약하고 가난한 대다수의 사람이 살고 있고 힘센 사람 편에 서는 것보다 약하고 가난한 이들 편에 서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착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남을 이기려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걸 알았다.

### 문학은 약한 이의 편에 서야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문학을 통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경험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간접 체험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갖 정보를 얻고, 지구 저편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초등학교 때 이미 외국여행을 다녀 온 아이들도 많다. 간접체험이 아니라 얼마든지 직접체험이 가능한 세상을 살고 있다. 세상은 변했고 그 변한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도 변했다. 올바름의 가치가 변했고,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 여겨지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어린이문학과 청소년 문학은 약한 이의 편에 서야 한다고 믿는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면 그 아이들이 서 있는 현실을 바로 보게 하는 것이 먼저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내 작품의 무대를 사람들이 외면하고 미처 보지 못한 곳으로 삼는다. 그곳이 바로 희망이 싹트는 곳이고 이 세상을 살아 숨쉬기 하는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어린이들 안에는 착한 마음이, 측은지심이, 연대의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글을 통해 아이들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일깨워주고, 결핍을 알게 해주고, 외로움과 가난,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알게

해주고 싶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학을 하기 위해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은 뭣도 아니고 별 볼일 없는 아이들을 사랑하며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내 글쓰기의 시작이고 끝이다.

〈출처 : 나는 어떻게 쓰는가, 한겨레 21 연재〉



< 이 글을 읽고 함께 나누어 보아요.>

1. 내게 ‘글쓰기’란 어떤 의미인가요?
2. 글쓰기를 해서 처음 느껴 본 보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아요.

<나만의 글쓰기 원칙>

1. 무엇을 썼는지 알 수 있게
2. 재미있게
3. 나만의 생각과 행동으로 내 삶을 나누기
4. 마음에 있는
5. 꼭 하고 싶은 말로
6. 가치가 있는
7. 마음에 느껴지게
8. 누구나 알고 있는 그대로를 뛰어넘는 글을 쓰자.

<함께 만들어 보는 글쓰기 원칙 > 함께 만들어 보아요.

## 비평&amp;감상글 분반 강의 자료 (강사\_김미정)

## 1. 서론

천운영. 처음 접해본 작가의 이름이다. 이름만 봐서는 이 작가가 창작하는 모든 작품의 분위기가 '평화로운 천 개의 구름'처럼 조용하고 온화한,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런데 <바늘>을 읽어보니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공기가 무겁다. 음침하고 추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한 마디로, '낯선' 분위기다. '낯설게 하기' 기법을 잘 사용한 것 같다. '바늘'은 작품을 구상할 때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소재는 아니다. 따가운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을 묘사할 때만 잠깐 얼굴을 비추는 '부재료'였을 뿐, 주재료는 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문신'이란 행위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부재료에서 주재료로 멋지게 탄생한 바늘과, 문신을 포함한 소설의 모든 소재들이 예사롭지 않다. 뭔가 추함 뒤에 아름다움을 숨기고 있을 것만 같고, 아름다움 뒤에는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주인공이 바늘로 한 땀 한 땀 문신을 새기듯, 소설 속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밑그림 위에 색채로 드러내주고 싶었다.

## 2. 본론

## 1) 작가 천운영에 대해

천운영은 1971년 서울 출생으로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200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바늘>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2001년 제9회 대산문학상 문학인 창작지원금을 받았으며 이후 꾸준한 창작활동을 전개하였다.

새로운 여성 미학의 선구라는 평가를 받는 천운영의 소설 세계를 관통하는 것은 인간의 몸과 욕망의 문제이다. 천운영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주로 훼손된 몸을 가진 여성인물들이며 이들은 육식성과 폭력성으로 대표되는 남성성에 비해 원초적이며 야생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인물들이다. 천운영은 이러한 주인공들이 기존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자신의 욕망

에 따라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소설화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폭로하고 있다. 천운영의 소설은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와 독특한 배경 설정의 측면에서도 특징적이다. 천운영 소설에는 그동안 소설적으로 잘 형상화되지 않았던 독특한 직업이나 지역이 종종 등장하는데 작가는 이를 배경으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치밀한 플롯을 통해 전개해 나간다. 또한 그의 간결한 문체와 극단적인 묘사력은 천운영 소설만의 기괴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3년에 신동엽창작상, 2004년에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소설집으로는 『바늘』(2001, 창비)과 『명량』(2004, 문학과 지성사), 『그녀의 눈물사용법』(2008, 창비)이 있으며 장편소설로는 『잘 가라 서커스』(2005, 문학동네)가 있으며, 최근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사건을 모티프로 하여 화제가 된 『생강』(2011, 창비)을 발간한 바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천운영 [千雲寧] (한국현대문학대사전)

## 2) 추한 외모의 여자들과 미추의 대립

천운영 소설의 중심 구도는 미추의 대립이다. 특이하게도 여자를(그것도 중심인물을) 추한 인물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 <숨>의 할머니는 머리를 느슨하게 땀아내려 소의 휘어진 꼬리털 같이 늘어뜨린 채로 80년을 살았고, 육식동물처럼 단단한 등뼈로 고기를 탐하는 다소 잔인하면서도 탐욕스러운 인물로 그려져 있고, <포옹>의 여주인공은 결핵보균자인 아버지의 결핵균을 물려받아 곱사등이의 몸을 갖게 되었다. 천운영 소설의 모든 ‘추한’여자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화장을 하거나, 성형을 하거나, 자신을 꾸미거나)은 드러나 있지 않다. 대리만족을 통해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거나 자신의 여성성을 억압하는 존재들에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바늘>의 여주인공도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곱추를 연상케 할 정도로 둥그렇게 붙은 목과 등의 살덩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목소리, 뭉뚱한 발가락’을 가진, 추한 여자로 그려진다. 그러나 그녀의 문신은 추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다. ‘거미 몸통의 암홍색을 위해서 베네티안 레드와 인디아 잉크, 징크 옥사이드를 고른다. 털이 복슬복슬하게 난 거미 다리는 크롬 그린과 암청색 인디고 염료를 사용하면 될 듯하다.’ 거미의 사실적인 느낌을 위해 정성껏 안료를 고르고, 섬세하게 명주실을 감는 여자는 아주 섬세한 모습이다. 추한 외모를 떠올릴 수 없을 정

도로 여성스럽게 그려진다. '살갓에 묻은 잉크와 피를 닦아내자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골리앗거미는 풍요로운 식사를 마치고 밀림 속에서 산책이라도 즐기고 있는 듯하다. 나는 어느새 밀림 속에 숨은 한 마리 거미가 된다. 가느다란 여덟 개의 다리로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투명한 거미줄에 미끄러지듯 걷는 거미. 발끝에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부주의한 청색 나비 한 마리가 내 거미줄에 걸려 파닥거린다. 청색 나비의 아름다운 날개가 나달나달해 지기까지 조용히 기다린. 그리고 다리에 난 섬세한 털로 남자의 몸을 애무하듯 먹잇감을 부드럽게 감싼다. 주사바늘을 꽃뿔 나비의 몸통에 촉수를 박는 그 순간.' 그녀가 그린 골리앗거미는 살아 숨 쉴 것처럼 남자의 몸에 새겨지고, 여자도 문신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남자의 몸을 애무하는 상상을 한다. 자신이 유일하게 아름다울 수 있는 순간이 바로 문신 행위다.

만약 문신을 추하고 혐오스러운 행위로 본다면, 그녀의 엄마가 수를 놓는 것은 아름다움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여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곱게 한복을 차려 입고 작은 방에서, 섬섬옥수 고운 손으로 옷감에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여인이다. 암전함, 조신함의 이미지도 아름다움의 또 다른 의미다. 그러나 엄마는 수를 놓는 바늘을 추한 행위에도 사용한다. '바늘을 잘게 잘라 매일 마시는 녹즙에 넣어 봐. 가늘고 뾰족한 바늘 조각은 내장을 휘돌아다니면서 치명적인 상처들을 만들지. 혈관을 따라 심장에 이르면 맥박을 잠재우며 죽음을 부르는데, 아무런 외상도 없어.'

소설에서 엄마가 현파스님을 살해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파스님을 살해하고, 자신 역시 자살했을 것이다. 대개 모든 죽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만 '살해'와 '자살'은 더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다. 바늘로 수를 놓던 우아한 엄마가 그 바늘로 현파스님 살해 사건(추악한)에 연루된 후, 자살(자신을 죽인다. 아주 좋지 않은 의미)하는 것도 미추의 대립이라 볼 수 있다. '한복 저고리를 바느질하던 엄마의 손은 옷감에 새겨진 고급 손수 같았다. 그리고 엄마와 스님과 함께 하던 차시간, 다기에 그려진 대나무보다 곧고 부드러운 엄마의 손을 따라 떨어지던 옥빛 찻물.' 이 때문에 주인공은 아름다운 엄마가 스님을 죽인 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현파스님 살해 사건을 떠올리며 그녀는 미륵암의 새끼 고양이를 떠올린다. 모든 욕망이 잠들어 있는 절에서도 미추의 대립은 존재한다.

'스님의 죽음을 생각하다가 미륵암에서의 새끼 고양이를 기억해낸다. 미륵암을 배회하던 수많은 고양이 떼. 마당이나 법당까지 함부로 나다니는 고양이들이 무척이나 두려웠었다. 그러

나 고양이들은 아름다웠다. 그 자그마하고 부드러운 몸속에는 온갖 아름다움이 용수철처럼 휘어져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양이를 아름답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내 고양이들을 시기의 대상으로 본다. 그때 마다 눈빛을 번득이며 육질의 맛을 느끼고 있는 고양이들을 나는 시기에 찬 눈으로 쳐다보았다.’ 절에서 느끼는 ‘육질의 맛’은, 계율을 어긴 아주 추악한 욕망이다. 아름다운 고양이들이 육질의 맛을 느끼며 추악한 욕망을 만끽하는 것과 주인공 또한 금기를 깨고 그런 ‘육질의 맛’을 느끼고 싶어 한다. 새끼 고양이를 죽이러 가면서도 여전히 고양이를 보며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다.

‘어느 날 뿔감으로 쓸 나무더미 사이에 이제 막 낳아 놓은 새끼 고양이를 보게 되었다. 온기가 느껴지는 새끼 고양이 몸에 손을 대 보았다. 순간 어디선가 어미 고양이가 기슭을 가하듯 나타나 등을 굽히며 내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나는 새끼 고양이를 들고 뛰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해 공중변소에 몸을 숨겼다. 내 손에 들려 있는 고양이는 작고 여리고 아름다웠다.’ 그 작고 여리고 아름다운 고양이는 더러운 변기통 속에 빠져 짧은 생을 마감한다. ‘구더기가 필사적으로 기어오르는 변기통 속으로 새끼 고양이가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오랫동안 쳐다 보았다.’ 그녀는 고양이들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면서도 질투의 대상, 살생의 대상인 추악한 존재로 여긴다. 자신의 본능인 ‘육식’이 추악한 욕망이 되는 ‘절’이란 공간 속에서,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육질의 맛’이란 추한 욕망을 즐기는 고양이의 얼굴 뒤에도 미와 추가 혼재해 있다.

‘쌀밥처럼 하얗고 말끔한 얼굴을 가진’ 801호 남자는 흔히 말하는 ‘곱상한 미남’이다. 잘생기다 못해 예뻐 보일 정도의 얼굴을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외모는 남성성을 갖지 못한 ‘추한’ 모습이다. 전쟁기념관의 매표원으로 일하며 ‘매일 화약 냄새를 맡고 포탄소리를 들으며’ 전쟁을 상상한다.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전쟁’으로 대비되는 힘이다. 그는 추한 살상이 일어나는 전쟁의 참상과 귀주대첩 기록화, 칠지도를 보며 아름다움을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은 어쩌면 전쟁을 아름다운 행위로 인식하는 남성성에서 기인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훼손된 남성성인 ‘아름다움’을 부정하고, 주인공으로부터 바늘 모양 문신이라는 강인함을 얻은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 3) 식욕과 색욕은 한 곳 차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3가지는 식욕, 색욕(성욕), 수면욕이다. 셋 중, 식욕과 색욕은 많이 닮아 있다. 둘 다 뒹가를 탐하고, 집어삼킨다. 빨 때의 느낌이 온 몸에 전해져오고, 세포가 강렬한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느껴야 더 행복하다. 이 때문인지 예술에서는 식욕과 색욕을 동일시하여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천운영 소설 〈눈보라콘〉의 소년은 눈보라콘을 먹거나 눈보라콘을 먹는 소녀를 볼 때 ‘허망하고도 풍만한 달콤함’을 느낀다. 언제나 녹은 아이스크림처럼 미끈미끈한 액체(정액?)가 허벅지를 스친다.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노래 〈레시피〉를 얼핏 들으면 남자를 위한 요리를 준비하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지만, 실은 남성을 ‘갖고 싶은’ 여성의 욕망을 담고 있다. ‘굴처럼 까고 싶어, 니 비밀을 알고 싶어. 바나나 껍질처럼 비밀을 벗기고 싶어.’ 그래서 식욕에 너자, ‘신음 소리’하나만 내면 색욕이 되는 것 같다. 식욕과 색욕은 한 곳 차이니까.

천운영의 소설 속에선 유난히 음식에 집착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앞에서 언급한 눈보라콘에 탐닉하는 소년, 육식 동물처럼 탐욕스럽게 고기를 즐기는 할머니(단편소설 〈숨〉). 이들의 식욕은 단순한 식욕이 아닌, 성욕(소년)과 지배욕(할머니)을 내포하고 있다. 〈바늘〉의 주인공 타투이스트는 문신 작업이 끝난 후, 언제나 고기를 찾는다. ‘나는 양념하지 않은 고기를 먹는다. 손가락 두께로 썰어서 피가 살짝 날 정도로 구운 쇠고기나 마늘과 양파를 많이 넣고 삶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 상추와 같은 야채를 곁들여 먹지도 않는다. 구운 고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채소류가 아니라 하얀 쌀밥이다. 쌀눈이 살짝 비치도록 말간 밥알에 약간 검어진 육류의 핏물이 스며들 때, 고기의 맛은 정점에 이른다.’ 주인공은 육식을 통해 온전한 ‘날 것’의 느낌을 받고 싶어 한다. 양념하지 않은 쇠고기에서 피를 보고 싶어 하는 대목에선 그녀가 문신을 하며 느끼는 성욕을 실제로 풀고 싶어 하는 것이 보인다. 을 가진 추한 그녀는 실제 남자들과 소위 ‘썸상’이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다.

“네가 조금이라도 예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나.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게 간절해지거든. 근데 넌 문신기술은 좋지만 도저히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하긴, 그림을 그려준 그 많은 놈들이 너한테 덤벼들었다면 넌 매일 항생제를 달고 살아야 했을 거야.”

비록 추한 외모지만 그녀는 여성이고 성욕도 가지고 있다. 그녀가 문신 후 언제나 찾는 고기는 바로 섹스를 향한 욕망의 표출이다. 상추와 같은 야채를 곁들여 먹지도 않는 것은, 훼손되지 않은 온전한 성욕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뒤틀린 육체처럼 성욕도 온전하게 표출되고 있진 못하다.

‘육류 코너를 떠나다가 쟁반 위에 올려진 붉은 살덩이들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둥그런 모양의 고깃덩어리는 꼭 삭발한 스님의 머리를 연상시켰다. 말끔하게 정리된 스님의 머리통은 곧 솟아오를 태양과 같았으며, 그 위엄이 넘쳐 어찌 보면 동물적인 냄새가 나기도 했다. 그래서 때론 둥그랗고 단단해 보이는 스님의 머리통에 마오리족의 혈흔문신을 새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삭발한 머리통에서 보였던 동물적인 느낌이 내 뒤틀린 성욕과 함께 희석되어, 고운 여자의 손이 스님의 머리통을 부여잡고 정사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곤 했다.’ 고깃덩어리들을 통해 ‘스님’이란 남성성을 억압받는 존재를 상상하는 것은, 자신의 여성성 역시 온전하지 못하단 의미다. 살갓을 지켜줄 머리카락 한 올 없이 연약한 맨살을 드러낸 스님의 머리에 ‘남성성’을 채워주고 싶어, 마오리족의 혈흔문신을 새기는 상상을 한다. 고운 여자의 손이 스님의 머리통을 부여잡고 정사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은, 엄마와 현파스님이 붙은 사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 4) 남성성을 잃은 그, 여성성을 잃은 그녀

주인공을 찾아온 모든 남자들은 문신을 통해 잃어버린 남성성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나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서 협각류의 단단한 외피를 얻으려 한다. 인간의 살갓은 오히려 과일에 가까워 쉽게 상처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인간의 살에 거미의 외피를 그릴 수 있다.’ 골리앗거미, 호랑이, 사무라이 검처럼 남성적인 문양을 그려 달라는 남자들은 모두 겉으로는 과일 껍질처럼 쉽게 상처가 나는 살갓처럼 외강내유(外強內柔)의 성격을 갖고 있다. 주인공에게 바늘 다루는 법을 알려준 김사장은 주인공을 문신의 세계로 이끌어 자신을 비롯한 남성성을 잃은 남자들에게 문신을 시킨다.

‘김사장이 데리고 온 사람은 평생 화투판을 전전했다는 사십대 후반의 남자였다. 유난히 술이 많은 머리를 새카맣게 염색을 하고 송아지처럼 커다란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남자의 어깨에는 푸른색 닳이, 가슴팍에는 커다란 사각형이, 배에는 다섯 개의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었다. “이기는 내가 외항선 탈 때 단체로 그린 기고, 이 네모는 'ㄹ'자 데이. '마산대표'라고 쓸라 했는데 문신하던 놈이 'ㄹ'자만 쓰고는 팔려가뻘다. 'ㄹ'자를 이리 크게 써 갖고 우예 마산 대표를 다 쓴단 말이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조져뿐기다. 마산 대표도 몬 하는 기 무신 성공이고 성공은.” 남자는 밑그림만 텅그러니 남은 문신자국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섯 개의 직사

각형은 오광을 그리려 한 것이라고 했다. 부적처럼 가슴에 품으면 없던 곳발이라도 세울 수 있으리라는 남자의 희망은 공허한 몇 가닥 선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마산대표는 고사하고 평생 꿈꾸던 큰 성공을 하지 못한 채 화투판만 전전하는 남자는, 주인공이 해준 문신을 통해 ‘공허한 몇 가닥 선’에 불과했던 ‘작은 액자’에 호랑이와 5광을 채워 넣는 것은 남성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남자의 작은 액자에 호랑이 한 마리를 그려 준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기세로 눈을 부라리고 있다. 참숯을 곱게 갈아 몸통 깊숙이 줄무늬를 새겨 넣는다. 사각형 안에 갇힌 호랑이는 고작 마산대표가 아니라 조선시대 무관을 대표했던 흉배 문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개의 사각형 안에는 일, 삼, 팔, 비, 풍. 다섯 개의 광을 그려 넣는다. 남자는 어느 화투판에서도 느긋할 수 있는 오광을 몸 안에 숨기고 있게 되었다. 인생에 있어 그렇게 막강한 숨긴 패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여유롭겠는가.’

현파스님도 소설 속에선 남성성을 잃은 남자로 등장한다. ‘아름다운’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 역시 훼손된 남성성을 상징한다. 불교에서 속세를 버리고 해탈하여 열반에 오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참으로 많다. 그 중에선 성욕도 포함된다. 엄마가 일부러 부르르린 바늘처럼 뽀족한 끝이 없어, 걸으면 거세되지 않은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반강제적으로 욕망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두피를 지켜줄 머리카락 하나 없이 맨살을 드러낸 모습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마오리족의 혈혼 문신을 새겨 남성성을 회복해주고 싶게끔 만든다.

801호 남자의 쌀알처럼 흰 얼굴과 곱살한 인상은 아름다운 한편, 훼손된 남성성으로 나타난다. 남성성이 약한 남성은 동족 간 생존 경쟁에서 불리하다. “내가 군대에 갔을 때 고참들은 내가 곱살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심한 열차려를 주곤 했어. 난 정말 깨끗하게 이겨냈지. 그런데, 어느 날 내 옆에서 잠자고 있던 고참이 내 바지를 벗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 난 꼼짝도 할 수 없었어…….” 성적 모욕까지 겪게 되자 자신의 흰 피부는 트라우마로까지 이어진다. “그때 난 알았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거세를 하거나 강해지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라 생각해? 강해지는 것밖에 없어. 넌 그걸 해 줄 수 있잖아. 내 몸을 가장 강력한 무기들로 가득 채워 줘. 칼이나 활, 미사일, 비행기, 뒤통.” 주인공만이 자신의 몸을 칼, 활, 미사일, 비행기 같은 강인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알고, ‘다시는 봉합할 수 없는’ 문신을 그린다. 그의 아름다움을 파괴하지 않고 싶은 주인공은, 그의 가슴에 작지만 가장 강한, 욕망과 남성성, 섬세함, 아름다움이 혼재된 바늘을 그려 준다. 801호 남자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한편, 남성성을 얻게 된다.

이렇게 남성성을 훼손한 남성들에게 문신으로 남성성을 회복해주는 주인공 역시, 여성성을 잃어버린 여자다. 흔히, 못생긴 여자는 여자도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유독 여성에게만 외모적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강하다. 남자와는 달리 주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이 소위 ‘남자가 꼬일’ 확률이 높다. 더 좋은 짝을 찾기에, 한 마디로 생존 경쟁에 더 유리하다. 이런 세상에서 ‘톡 튀어나온 광대뼈와 곱추를 연상케 할 정도로 둥그렇게 붙은 목과 등의 살덩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목소리, 뭉뚱한 발가락’을 가진 추한 주인공은 ‘여자’로서의 삶을 당당히 누려 보지 못했을 것이다. 고운 손으로 수를 놓고 차를 따르는 주인공의 엄마가 아름다운 모습인 것과는 달리, 추한 외모로 태어나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왔을 확률이 크다. 못생긴 외모로 인해 어린 시절 받았을 상처도 컸을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자로서 당당히 누려야 할 성욕조차 마음껏 누릴 수 없다. 그녀에게 문신 시술을 받는 남자들조차, 그녀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런 그녀에게, 김사장은 탈피의 기회를 주었다. 옷감에 수를 놓는 엄마의 미적 감각은 그녀가 물려받은 유일한 아름다움이었고, 그것은 문신이라는 다소 거칠고 남자답지만 한편으로는 섬세한 작업으로 태어난다. 그녀는 문신을 할 때, 유일하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 자신에게 문신을 받는 남자들이 그녀의 외모를 추하게 보더라도, 문신만큼은 아름답다고 여긴다. 문신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그녀의 분신이자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행위이다.

##### 5) 미륵암과 엄마, 그리고 현파스님 살해 사건

주인공은 간질발작을 고치기 위해 엄마와 함께 미륵암에 머물게 된다. 여기서 절은 모든 욕망을 죽이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해탈해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 욕망이란 것을 가져선 안 된다. 사리사욕과 ‘간질발작’같은 비정상적이고 야생적인 모습, 그리고 성욕을 죽여야 한다. 이러한 미륵암은 주인공에게 있어서 구속과 속박의 의미였을 것이다. 육식주의자인 주인공 또한 절에서 채식을 해야 함은 피할 수 없다. 출가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이다. ‘여리고 따뜻하고 조금은 메마른 스님은 때로 신도들이 가져온 생선대가리나 고깃덩어리를 요사채 앞에서 고양이들에게 던져주곤 했다. 그때마다 눈빛을 번득이며 육질의 맛을 느끼고 있는 고양이들을 나는 시기에 찬 눈으로 쳐다보았다.’ 절에 생선대거리와 고깃덩어리를 가져온 신도들은 무슨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 미륵암 뒷마당에서 몰래 먹기 위한 것이었음이라. 꼭꼭 숨겨 왔지만 들켜버린 ‘욕망’들을, 스님이 고양이들

에게 ‘던져준’ 것이다. 채식이 계율이더라도 인간의 욕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미륵암에서 유일하게 호사(?)를 누리는 존재인 새끼 고양이들은 주인공이 질투하는 대상이다. 절에 머무는 동안 한 번도 입에 대 보지 못한 고기를 밀반입해오는 신도들과(이들은 절만 벗어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 유일하게 육식이 허락된 존재인 고양이들. 그러다 주인공의 욕망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

‘어느 날 땀감으로 쓸 나무더미 사이에 이제 막 낳아 놓은 새끼 고양이를 보게 되었다. 온기가 느껴지는 새끼 고양이가 몸에 손을 대 보았다. 순간 어디선가 어미 고양이가 기슭을 가하듯 나타나 등을 굽히며 내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나는 새끼 고양이를 들고 뛰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해 공중변소에 몸을 숨겼다. 내 손에 들려 있는 고양이는 작고 여리고 아름다웠다. 새끼 고양이를 변기 속으로 집어던지기까지 단 일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구더기가 필사적으로 기어오르는 변기통 속으로 새끼 고양이가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가두고 있는 ‘채식’이란 계율에 저항하기 위해, 절의 또 다른 금기인 ‘살생’을 한다. ‘산 아래 마을’이란 공간은 절에서 벗어난 세속의 공간을 의미한다. 미륵암과 달리 욕구를 마음껏 해소할 수 있는 곳이다. 화장실의 또 다른 이름인 ‘해우소’는 근심을 없애는 공간이란 뜻이다. 고양이를 조용히 살해해, 근심이 남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화장실이고, 은밀한 욕구를 몰래 해소하는 곳이다. 주인공이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엄마가 현파스님을 흔적 없이 살해할 거라는 복선 구실을 한다.

비단에 곱게 수를 놓는 조신한 엄마도 욕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소설 속에서 그녀의 남편, 주인공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남편의 부재로 인해, 그녀는 성욕을 포함한 모든 표출할 기회를 잃었다. 모든 욕망이 잠든 조용한 절에서도, ‘남자’인 스님을 보는 엄마는 성욕과 애정욕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면도칼을 들고 스님의 머리를 깎는 엄마를 상상한다. 무릎을 꿇은 채 한 손으로 스님의 어깨를 살짝 누르듯 짚고 한 손으로 이발을 하는 엄마. 면도칼 끝에서 스님의 머리카락이 스르르 떨어져 내리는 모습은 아주 고즈넉한 풍경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모아 침낭에 넣었을 엄마의 섬세한 손도 생생하게 그려진다. 찻상을 가운데 두고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는 엄마와 스님의 모습처럼.’ 스님의 머리를 깎아 주고 찻상을 마주하며 사랑을 키웠을 것이다. 그녀의 억압된 욕망은 스님과 세속 사람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주인공의 간질발작이 완치되어 더 이상 절에 머물 일이 없어져 집에 돌아왔지만, 엄마는 다시 절에 돌아간다.

‘그러나 엄마는 달랐다. 엄마는 나흘 동안 숯물 들인 무명 동방의와 바지, 치지물 들인 가사를 만들었다.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까지 완벽히 끝났을 때 엄마는 내게 겨자색 보자기에 둘둘 말린 것을 꺼내 놓았다. 엄마가 준 보자기에는 꽤 많은 돈 몽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엄마는 스님의 옷을 들고 집을 나섰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겠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말이였다.’

욕망을 대표하는 ‘돈 몽치’를 들고 절에 찾아가는 것은 미륵암에서 욕망의 불꽃이 터질 것을 암시한다. ‘침낭에 머리카락을 넣어두면 녹이 슬지 않는다.’의 의미는, 억압된 남성성의 의미를 가진 ‘스님의 머리카락’과, 여성성의 의미를 가진 엄마의 바늘을 함께 두면, 두 소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인 ‘욕망’이 녹슬지 않을 거라는 뜻이다. 스님의 머리를 애정 어린 손길로 깎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침낭 속에 소중한 바늘과 함께 넣는 것은 두 사람의 합방, 성관계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엄마는 이러한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엄마가 가장 아끼던 일제 바늘쌈을 펼친다. 1호부터 20호까지 금빛 머리를 빛내며 꽃혀 있는 바늘들. 손가락 끝으로 아주 미세한 곡선의 감촉을 느끼며 바늘을 뽑아든다. 갑자기 모든 신경 세포가 한꺼번에 바늘 끝으로 몰린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바늘들을 들여다본다. 스무 개의 바늘은 전부 뾰족한 바늘 끝이 잘려져 있다. 바늘은 날카로움을 잃어버린 채 철사처럼 뭉뚱했다. 엄마는 일부러 바늘 끝을 잘라 낸 것이다.’

바늘의 끝을 자르는 것은 거칠고 추한 욕망을 잘라내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바늘이 한편으로는 ‘남성’의 의미도 내포하기 때문에 현파스님의 거세되고 억제된 남성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엄마는 자신이 현파스님을 죽였다고 우긴다. 주인공은 계속해서 엄마가 현파스님을 살해한 것에 의문을 갖고, 마지막에는 ‘엄마는 왜 죽이지도 않은 스님을 죽였다고 했을까?’라고 하며 엄마가 현파스님을 살해했다는 것을 부정한다.

‘바늘을 잘게 잘라 매일 마시는 녹즙에 넣어 봐. 가늘고 뾰족한 바늘 조각은 내장을 휘돌아다니면서 치명적인 상처들을 만들지. 혈관을 따라 심장에 이르면 맥박을 잠재우며 죽음을 부르는데, 아무런 외상도 없어.’

이 한 문장을 통해, 엄마가 현파스님을 살해했음을 말하고 있다. 엄마가 현파스님을 살해하는 것은, 자신을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억압된 남성성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조신한 자신이 느끼고 있는 추한 욕망을 증오하기 때문에, 스님을 살해한 후 자살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 욕망에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늘 끝을 잘라 녹즙에 넣어 욕망을 죽인 것이다.

## 6) 그렇다면 ‘바늘’의 의미는?

소설 〈바늘〉을 읽으면서, 박지윤의 〈성인식〉 뮤직비디오가 떠올랐다. 전체를 아우르는 음침하면서도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러나 말 할 수 없는 매혹이 느껴지는 분위기, 흑과 백의 극명한 대립(박지윤 〈성인식〉에서는 의상, 소설에서는 미와 추), 감상한 후에는 드러날 듯 말 듯한 묘하게 에로틱한 느낌이 신경세포를 강타한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바로 ‘바늘’이 등장하는 것이다. 흔히 바늘처럼 길쭉하거나 뾰족한 물건은 남성을 상징한다. 〈성인식〉 뮤직비디오에서는 미싱 장면에서 바늘을 클로즈업하는데, 이때 바늘은 남성을, 바늘 아래의 노루발은 여성. 즉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다. 미싱에 손을 다쳐 흘린 피가 흰 천에 스며드는 것은 ‘첫 경험’으로 여성의 처녀막이 파열되는 것이다. 〈잠자는 숲 속의 미녀〉에서 오로라 공주가 15번째 생일에 물레에 손이 찢리는 것이나, 영화 〈활〉에서 활에 맞은 소녀의 하얀 치마가 피로 물드는 것도 같은 의미다.

〈바늘〉에서의 문신 작업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허벅지에 문신을 새기는 작업은 등이나 가슴 쪽보다 훨씬 신경이 쓰인다. 상대의 종아리에 올라탄 채 팬티 사이로 비어져 나온 털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고른 숨소리와 코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바람은 남자의 사타구니를 데우기 충분하다. 남자의 성기는 내가 바늘을 댄 순간부터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해 밑그림이 끝날 즈음이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성이 나기 마련이다.’ 바늘(남성)으로 연약한 살갓(여성)을 찢어, 문양을 새기는(첫 경험으로 처녀막이 파열되는)이 모든 문신 작업 과정은, 섹스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추한 외모의 주인공은 누구하고도 관계를 가져 본 적이 없다. ‘남자가 말한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하는 이유들이다. 남자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추하다는 추상어가 명백히 눈앞에 펼쳐져 구체성을 획득하는 것을 느꼈다. 거기에 나는 말까지 더듬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 바늘 끝에서 나오는 문신을 보고 추함과 연결시키는 사람은 없다.’ 그녀를 찾는 남자들

은 모두 그녀의 문신 실력에 감탄해 찾아오는 것이다. 바늘 끝에서 나오는 문신을 보고 추함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없듯, 문신 행위는 그녀가 유일하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문신을 끝낼 때마다 격렬한 섹스를 하고 난 듯한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것은, 그녀는 문신 행위와 섹스를 동일시하고 있으며 섹스의 대리만족을 문신을 통해 푸는 것이다.

주인공의 엄마에게 있어서 바늘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도구이다. 사람의 살갓을 찢어 수를 놓는 주인공과는 달리, 부드러운 옷감 위에 수를 놓는 아름답고 조신한 모습. 엄마의 바늘은 욕망이라는 이면도 갖고 있다. 절이란 공간과, '스님'이란 상대의 상황이 욕망의 표출을 막았을 뿐, 현파스님의 머리를 깎아 주는 부드러운 손길과, 그 머리카락을 몰래 침낭 속에 넣어두면서 은밀한 쾌락을 꿈꾼다. 그러나 엄마는 자신의 조신함과 욕망을 죽여야 하는 '미륵암'이란 공간을 부정하기 위해 바늘을 사용한다. 바늘로 살해한다고 하면, 직접 바늘을 들어 심장에 가격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엄마의 방법은, 녹즙 속에 몰래 바늘의 잘린 끝을 넣어 은밀하게 목숨을 끊는 것이다. '스님의 아름다움을 지켜주기 위해 누군가 사건을 은폐했을 수도 있다'란 주인공의 추측처럼, 자신이 사랑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지켜주기 위해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끝이 잘린 바늘'같은 존재인 스님에게 '바늘의 뾰족한 끝'을 먹임으로 인해, 억압된 남성성을 회복할 수 없음을 체념하는 것이다. 엄마의 바늘은 끝이 잘려나간 아픈 바늘이다.

“아름답다고? 내 모습을 봐. 죽은 사람처럼 하얀 이 피부 좀 보란 말야. 내 피부는 선천적으로 너무 하아서 쉽게 타지도 않아. 구릿빛 피부를 만들어 보려고 하루 종일 선탠을 해본 적도 있어. 그런데 발갛게 달아오르기만 하지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제자리야. 나는 언제나 허약하고 소심해 보여. 난 그게 싫어.”

남자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죽은 사람처럼 추해 보인다고 여긴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의 아름다움을 지켜 주고 싶어 한다. 현파스님을 살해하면서도 스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주고 싶어 했던 자신의 엄마처럼. 어쩌면 주인공이 801호 남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이건 처녀막처럼 한번 상처가 나면 다시 봉합할 수 없어. 죽을 때까지 네 몸에 붙어 있을 텐데 그래도 하겠어?”

그녀는 남자와 첫 섹스를 하게 될 것을 직감하고 말한 것이다. 801호 남자와 주인공은 서로 훼손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찾으려 하는 인물로, 두 사람의 성 정체성을 회복시켜 줄 유일한 수단은 사랑과 성행위다. 남자와의 섹스를 통해 처녀막에 영원한 흔적이 남을 여자와, 문신이 영원히 피부에 남을 남자.

소설 결말에서, 남자의 가슴에도 작은 바늘이 새겨진다. ‘나는 그의 가슴에 새끼손가락만한 바늘 하나를 그려 주었다. 티타늄으로 그린 바늘은 어찌 보면 작은 틈새 같았다. 어린 여자아이의 성기 같은 얇은 틈새. 그 틈으로 우주가 빨려 들어갈 것 같다.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가슴에 품고 있다. 가장 얇으면서 가장 강하고 부드러운 바늘.’ 소설에서의 바늘은 여러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 섬세함과 조신함, 그리고 욕망과 남성성. 여자는 801호 남자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키지 않는 한편, 그에게 남성성을 회복시켜준다. 가장 얇으면서도 가장 강하고 부드러운 바늘 같은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주인공은 작은 틈새 같은 바늘에서 어린 여자아이의 성기를 연상하고 우주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에게서 이제 막 발아하기 시작한 남성성을 보고,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결론

소설을 읽으며, 성인식을 치르는 느낌이 들었다. 박지윤의 〈성인식〉처럼 묘하게 음침하면서도 성감대를 자극할 것 같은 분위기에 끌리다가도,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라고도 발적으로 외치는 문체에, 창작세포에 한 땀 한 땀 명주실로 문신을 새기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나도 이런 문체를 구사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성인식〉 뮤직비디오 속 박지윤의 의상처럼 보일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그런 문체를 갖고 싶은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천운영은 취재를 잘 하는 작가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한다. 소설 소재로는 흔치 않고 여성이 취재하기 힘든 장소까지 직접 달려가 체험한 것이 소설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 〈바늘〉의 문신소는, 날카로운 바늘과 살갗을 관통하는 명주실과 안료, 바늘을 달구는 냄새처럼 문신소 풍경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와 촉감을 그대로 옮겨 온 것만 같다. 이런 묘사는 소설을 위해 몸을 던지는 정신을 가졌을 때만 가능하겠지. 상상을 풀어 놓는 간접 경험보다, 직접 느낀 것에 상상을 접목시키는 직접 경험의 문체는 뭔가 더 특별하다.

사람이 성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자신이 가진 정체성을 찾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2차 성징 이후로 자신의 성을 재확인하는 경험(월경, 몽정 같은)을 통해 성숙해가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는 고통이 따른다. 문신으로 남성성을 회복하려는 남자들처럼, 〈성인식〉의 박지윤처럼 피를 봐야 한다.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내 글이 정체성을 갖기까지 피를 흘릴 날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파하지는 말자. 골리앗거미처럼, 바늘처럼 더 단단한 형체를 갖추기 위한 과정이니까.

## 캠ป์ 생활 수칙

1. 첫날 조별 모임에서 조이름과 조장을 정해주세요.
2. 각 방의 열쇠 관리자는 열쇠를 잘 관리해주세요.
3. 귀중품은 운영자에게 맡겨주세요. 분실 시 본인 책임입니다.
4. 음주와 흡연은 절대 불가! (적발 시 퇴소 조치)
5. 개인행동은 자제해주세요. (필요시 조장 또는 봉사에게 알림)
6. 조별모임 시 간식은 정해진 만큼 배급.
7. 개인사정, 응급약품 등 각종 문의는 봉사 혹은 운영자에게!
8. 퇴소 시, 버스 운행합니다.
  - 1호차 : 토지문화관 → 원주 버스터미널 → 대전역
  - 2호차 : 토지문화관 → 서울역
9. 귀가 당일 교통편 출발시간은 미리 확인하세요.
  -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 : 033) 734-4114
  -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 033) 747-4181
  - 코레일 (서울역/대전역) : 1544-7788

## 2015년도 제3기 <문학특!기자단> 모집 안내

알지 못했던 것, 알고 싶은 것, 알리고 싶은 것,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보며 기사를 쓰고, 또 그것이 게재되는 것을 보는 즐거움.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즐겁고 열심히 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문학특!기자단에 어서 오세요!

### ○ 참가자격

스무 살 언저리에 있는 글턴 출신 대학생.

(대학생이어도 좋고 휴학생이어도 좋고 학생이 아니어도 좋아요.)

### ○ 응모방법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A4 한 장의 자기소개서를

이메일(rldyap@arko.or.kr)로 발송하세요!

### ○ 활동기간 : 2015. 5월~ 2016. 2월말

### ○ 모집일정 : 2015. 4.30(목)까지

※ 위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월 초

<문장>, <글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5년도 글틴 청소년문학캠프 설문조사

1. 성별 :  남 /  여

2. 연령 :  중학생 /  고등학생 /  비제학생 /  졸업생

3. 이번 문학캠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자면?

재밌고 즐거웠다. /  그저 그랬다. /  재미없었다. /  모르겠다.

4. 이번 문학캠프에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과 이유는?

5. 앞으로 문학캠프를 위해 개선하거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6. 글틴에 한마디!

---

2015년도 제10회 글틴 청소년문학캠프를 위해  
도움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